

제1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작년 6모의 특징

- 달라진 수능 체제를 반영하여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선택 영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달라진 수능 체제를 반영하여 ‘독서’와 관련된 지문(1~3번)을 출제하였습니다.
- 주제 통합 독서 지문(12~17번)과 갈래 복합 지문(22~26번)을 출제하였습니다.
- ‘독서-독서-문학-문학’과 같이 독서 지문은 앞에, 문학 지문은 뒤에 제시하였으며 독서에서 4지문(17문항), 문학에서 4지문(17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문학 지문에 평론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화법과 작문’은 화법 3, 화법과 작문 통합 5, 작문 3문항을 출제하였으며, ‘언어와 매체’는 이론 지문을 포함하여 언어 5문항, 두 개의 매체 지문에서 각각 4문항, 2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작년 수능의 특징

- 수능에서는 ‘독서-독서-문학-문학’과 같이 독서 지문은 앞에, 문학 지문은 뒤에 제시하였습니다.
- 독서가 3개 지문이 아니라 4개 지문으로 제시되었으며, 추가된 1개의 독서 지문은 독서의 본질, 방법, 태도 등의 내용을 다룬 지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의 1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 문학에서는 갈래 복합, 독서에서는 주제 통합이 출제되었으며, 문학에서 평론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6모와 달리 주제 통합 독서 지문이 12~17번에 제시되었습니다.
-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3, 화법과 작문 통합 5, 작문 3을 출제하였습니다.
- ‘언어와 매체’에서는 이론 지문을 포함하여 언어 5문항, 두 개의 매체 지문에서 각각 4, 2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 출제된 독서와 같은 경우 4개의 지문 모두 EBS 수능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며, 연계 또한 EBS 수능교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매우 밀도 있게 연계하였습니다.
- 출제된 문학과 같은 경우 작자 미상의 ‘김원진’,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는 EBS 수능교재에 수록된 부분의 일부가 출제되었으며,

정끝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는 EBS 수능교재 수록 부분과 일치하였습니다.

금년 6모 출제 예상

- 전년도 수능 유형과 마찬가지로 독서는 4개 지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1개는 독서의 이론에 대한 지문, 1개는 주제 통합 지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남은 2개에서 과학, 인문, 사회, 기술이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독서-독서-문학-문학’의 구성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화법과 작문 통합, 작문 문제는 각각 3, 5, 3문항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언어와 매체’에서 작년 6월 모의 평가와 같이 언어는 이론 지문을 포함하여 5문항, 매체는 두 개의 지문에서 각각 3, 3문항 또는 작년 수능과 같이 언어는 이론 지문을 포함하여 5문항, 매체는 두 개의 지문에서 4, 2문항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해당 실전 모의고사는 위 출제 예상 내용을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3회분 모두 4개의 독서 지문과 4개의 문학 지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제 통합 독서 지문과 독서 이론에 대한 지문은 출제될 확률이 100%에 가까우므로 모든 회차에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언어와 매체는 2회분은 매체의 문항 구성을 3, 3문항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지문에 대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독서 주제 통합은 전처럼 12~17번에 제시될 가능성이 있기에 총 3회분을 13~17번에 출제하였습니다.
- 문학 갈래 복합은 1회분은 22~27번, 1회분은 26~30번, 1회분은 27~32번에 배치하여 다양한 유형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매체는 최신 경향을 접목하기 위해 최신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본격적인 독서 편력은 20세 때에 시작된다.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나는 시립 도서관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온갖 책들을 읽었다. 도서관의 책들을 다 읽을 기세로 덤벼들었으나 물론 그것은 터무니없는 꿈이었다. 나는 날마다 책 한 권을 읽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랐다. ㉠ 반가통(半可通)이 사물의 이치를 어렵게 이해하는 것이라면, ㉡ 전가통(全可通)은 사람이 깨치고 알아야 할 사물의 이치와 앎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시립 도서관에서 전가통의 세계를 꿈꾸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기초 소양이 되는 앎은 반가통의 앎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반가통의 앎이 진리로 두루 통용되는 사회이다. 늑대들의 울부짖음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반가통의 세계에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대충 알고, 모르는 것은 관습과 관행으로 지탱하는 반가통의 사회이다. 지적으로 나태해도 그럭저럭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이다. 적당히 아는 것만으로 사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다들 나태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낙오될 염려도 없다.

나는 동과 서, 옛것과 새것들을 두루 찾아 읽으며 전가통의 앎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청년 시절을 보냈다. 희망 없는 내일과 궁핍이 의식을 옥죄었지만 날마다 책들을 읽는 것으로 그 고통을 견뎠다.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생업에 전력투구하던 시절은 아주 암울하고 빈곤한 시절이었다. 반가통의 독서로 겨우 연명하고, 늘 알 수 없는 결핍감과 불행한 느낌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생업에서 풀려나온 뒤로 나의 독서 편력은 다시 활력을 찾고 풍요로워졌다.

나는 날마다 책 한 권 읽기를 실천하는 원칙을 따르려고 애쓴다. 책과 친해지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책에 몰입한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책에 흠뻑 빠져든다. 둘째, 책을 읽는 즐거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책 읽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렵다. 셋째, 읽어야 할 책들을 꼼꼼하게 고르고 그것들을 사들인다. 책들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책 읽기는 시작된다. 넷째, 읽은 책들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읽은 것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억은 상상력을 한정하지만, 망각은 무한한 상상력의 텃밭을 일구는 쟁기이다. 그런 까닭에 망각은 풍요로 나아가는 길이다.

보르헤스는 우주를 거대한 도서관으로 상상한다. 우주가 곧 책 한 권이다. 우주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읽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읽어 갈 책이다. 우리는 책이라는 낙타를 타고 우주라는 사막을 타박타박 횡단하는 중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 원리에 비추어 보자면 불가피한 욕망이다. 그 욕망이야말로 문명의 진화를 추동해 온 힘이다. 책 읽기를 그친 세계에서는 문명의 역동적인 발전도 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세계는 쇠퇴하고 소멸할 것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한 권이나 두 권씩 읽어 치우는 것은 책 읽기에서 찾는 즐거움 때문이다. 나는 읽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1. 글쓴이가 가진 ‘독서’에 대한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번 독서에서 멀어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 ② 책을 읽는 즐거움을 찾아야 지속적인 독서가 가능하다.
- ③ 독서는 현실의 고통을 견뎌 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
- ④ 책을 통해 앎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불가피한 욕망이다.
- ⑤ 독서는 현실적 이익을 떠나 그 자체로 인간에게 필수적인 일이다.

2. <보기>는 위글에 제시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바탕으로 독서 계획을 세운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글쓴이가 제시한 방법	독서 계획
책에 몰입한다.	독서 시간을 따로 정해 두고 그 시간에는 책에 집중하도록 하자.
책을 읽는 즐거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읽고 싶은 책이나 흥미 있는 분야의 책에서부터 시작하여 책 읽는 즐거움을 찾도록 하자.
책을 꼼꼼하게 고르고 그것들을 사들인다.	㉠
읽은 책들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

- ① ㉠: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읽도록 하자.
- ② ㉠: 책을 읽는 목적을 정하고 이에 맞는 책을 골라 읽도록 하자.
- ③ ㉠: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책부터 읽도록 하자.
- ④ ㉡: 독서 활동지를 만들어 책을 읽으면서 얻은 정보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자.
- ⑤ ㉡: 책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쉬운 책을 중심으로 읽도록 하자.

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지적으로 나태한 삶과 관련된다.
- ② ㉠은 ㉡과 달리 글쓴이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 ③ ㉠은 ㉡과 달리 책을 통하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책을 통해 삶의 기초 소양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은 ㉠과 달리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 앎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으로 역사의 시대 구분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역사 시대를 ‘고대-중세-근대’의 세 시대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3분법은 르네상스 시대에 ㉠ 인문주의자들의 시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기에 ‘새로운 시대’가 ㉡ 도래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새로운 시대’란 이전에 있었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는 의미였다. 이들에 의하면 과거 그리스·로마 시대는 찬란한 인문문화의 꽃이 만개한 황금기였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북유럽에서 게르만족이라는 ‘야만족’이 내려와 암흑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죽었던 고대 문화의 ‘빛’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역사의 시대 구분은 과거의 황금시대인 고대가 있고, 그것을 되살린 시대가 근대이며, 그 중간이 야만의 시대인 중세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3분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에서 형성된 이 ‘근대’란 개념이 단순히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라 ‘발전’의 뜻을 ㉢ 내포한 개념이며, 그것도 중세의 ‘암흑’으로부터 ‘빛’의 시대로 나아갔다는 극적인 발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이제 새로운 빛이 다시 쬐였으니 이 빛의 인도를 받으며 인류의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는 다음 시기인 계몽주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3분법적인 시대 구분과 역사 인식은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의 근대 역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역시 3분법을 바탕으로 세계사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유럽사만이 아니라 세계사 전체를 하나의 보편 법칙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역사를 보편 법칙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특정 사회 공동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3분법의 역사 시대 구분인 고대, 중세, 근대를 각각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제 사회로 ㉤ 규정하였다. 이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는 고대 이전의 원시 공산 사회와 근대 자본제 사회 이후의 공산 사회를 추가하여 역사 발전의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

역사 발전의 5단계설에는 역사가 반드시 정해진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는 전제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전제를 소위 ‘단계설’이라고 한다. 단계설에서는 역사학의 시대 구분이란 단순히 역사 시대를 몇 토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역사 시대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며, 각 시대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발전의 단계를 바탕으로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역사의 시대 구분 방식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단계설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근대 역사학은 유럽의 역사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보편적인 역사 발전 과정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로 귀결되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과 다른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친 비서구권의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혹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회로 ㉥ 치부하기도 하였다. 결국 유럽의 근대 역사학은 유럽인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타자를 ㉦ 재단하는 잣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역사 시대를 ‘고대 - 중세 - 근대’로 구분하는 방법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 ② 인류 역사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르네상스 시대에서 계몽주의 시대로 이어졌다.
- ③ 3분법에 영향을 받은 유럽의 근대 역사학은 자문화 중심주의로 귀결되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④ 단계설은 역사 발전 단계를 바탕으로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⑤ 마르크스주의는 노예제 사회와 봉건제 사회를 생산 양식의 측면에서 동질적인 시기로 인식하였다.

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밑줄 친 ‘일부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 구분 역시 유럽의 근대 역사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발전의 역사로 인식하면서 역사 시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들은 고조선부터 통일신라까지를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고대, 고려 시대부터 조선의 개항까지를 봉건제 사회인 중세,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를 자본주의 사회인 근대로 구분하였다. 한편, 이러한 견해는 근대의 기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부적 논란을 거치면서 18세기 영·정조 시대를 새로운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로 귀결되었다. 비록 18세기 영·정조 시대 이후 일제에 의해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이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 자본주의 체제가 싹트고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 ①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를 생산 양식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군.
- ② 고려 시대보다는 개항 이후의 시기를 보다 발전된 역사 시대로 인식하고 있었군.
- ③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대, 중세, 근대 순으로 단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군.
- ④ 근대의 기점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일제의 침략이 중세 시대를 연장했다고 보고 있군.
- ⑤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 여부를 설정하고 있군.

6. ㉠, ㉣의 관점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근대를 고대가 되살아난 시기로 인식하였다.
- ② ㉠은 ㉣과 달리 고대를 중세에 비해 발전된 시기로 인식하였다.
- ③ ㉣은 ㉠과 달리 역사를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
- ④ ㉣은 ㉠과 달리 근대의 개념이 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 ⑤ ㉠과 ㉣ 모두 근대 이후에도 역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
 ② ㉡: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③ ㉢: 규율을 세워 바르게 정리함.
 ④ ㉣: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보거나 여김.
 ⑤ ㉤: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함.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잔잔한 호수에 배 한 척이 시속 10킬로미터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배 안에는 영수가 있고 호수 밖 지상에는 영희가 서 있다. 이 두 사람이 공을 각자 자신의 머리 위로 던지면 공을 처음 위치에서 다시 받게 된다. 공이 떠 있는 동안 배가 움직인다고 해서 처음보다 뒤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에게 보이는 자연 현상은 똑같다. 이 현상을 '㉠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갈릴레이가 주장한 상대성 원리의 기본 전제이다.

관성계란 뉴턴의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말한다. 관찰자가 정지, 혹은 등속 직선 운동 중에 있다면 관찰자는 관성계에 있다고 말한다. 관성계 속에 있는 관찰자 영수와 영희를 생각해 보자. 영수와 영희는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즉 영희를 기준으로 보면 영수가 움직이는 것이고, 영수를 기준으로 보면 영희가 움직이는 것이다. 누가 진짜로 서 있고 또 누가 진짜로 움직이는지 결정할 기준이 없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면 왜 던져 올린 공이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느냐는 비판에 곤혹스러워했다. 하지만 관성계를 통해 그 비판도 깔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던져 올린 공과 영희가 수평 방향으로 모두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영수는 호수 위를 움직이는 배 위에 있고 영희는 호수 밖 지상에 있다. 이때 새가 호수 위를 영수의 배가 나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로 날아간다. 새가 영수가 탄 배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 영수와 영희가 동시에 그 새의 속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지만 둘의 결과는 다르다. 영희가 측정한 결과는 시속 40킬로미터이지만 영수가 측정한 결과는 자신의 속도 10킬로미터를 뺀 시속 30킬로미터이다.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영수와 영희가 동일한 새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가 다르며, 이 두 결과 사이에는 규칙이 있다. 영수와 영희의 상대 속도인 시속 10킬로미터만큼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자. 같은 장소에 있는 영희와 영수가 어떤 사건이 발생한 어느 지점(사건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한다. 영희는 사건 지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고, 영수는 사건 지점을 향해서 속도 v 로 움직인다. 따라서 영희가 측정한 위치는 고정된 값이지만, 영수가 측정한 위치는 시간에 따

라 달라지므로 지금 잰 것과 1초 후에 잰 결과가 다를 것이다. 즉 영수와 영희가 같은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는 측정값이 X 로 동일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수의 측정값은 줄어든다. 영수가 v 의 속도로 움직이므로 t 초 후의 거리는 '속도×시간', 즉 원래 값에서 vt 만큼 줄어들게 된다. 영수가 측정한 결과를 X' 이라고 한다면 영수와 영희의 측정 결과는 ' $X' = X - vt$ '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갈릴레이의 변환식이라고 한다. 이제 사건이 1초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한다고 해 보자. 두 사람이 그 시간 간격을 잰다면 모두 1초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영수가 잰 시간을 t , 영희가 잰 시간을 t' 로 표현한다면 ' $t = t'$ '이 된다. 이와 같이 ㉡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관찰자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가정을 한다.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가정이다. 앞에서 영수와 영희가 새의 속력을 측정한 값은 달랐다. 영희와 영수의 운동 상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속력의 차이만큼 측정 결과도 달랐던 것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가정은 영수나 영희 모두 빛의 속력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갈릴레이의 가정에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아인슈타인의 가정을 더하면 ㉢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된다. 즉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는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광속 불변의 법칙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더 자세히 이해해 보자. 두 관찰자 영수와 영희가 있다. 영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차에 타고 있고, 영희는 기차 밖에 있다. 기차 안의 영수가 기차 밖의 영희와 마주 보는 순간, 기차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두 광선을 발사하면 영수가 보기에 빛이 동시에 기차 양 끝에 도달한다. 광선이 기차의 끝에 도착하는 순간 깃발이 올라가는 장치를 한다면 영수는 두 깃발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그런데 영희는 다르다. 상식적으로는 영희가 볼 때 두 광선이 동시에 양 끝에 닿으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이 왼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보다 빨라야 한다. 오른쪽으로 가는 광선은 기차 앞쪽이 자꾸 멀어지므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지만 왼쪽으로 가는 광선은 기차 뒤쪽이 다가오므로 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가정에 의해 오른쪽으로 가는 광선은 같은 속력으로 먼 거리를 가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왼쪽으로 가는 광선은 같은 속력으로 가까운 거리를 가므로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 따라서 영희는 두 깃발이 동시에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기차의 뒤쪽 깃발이 먼저 올라오고 앞쪽 깃발이 나중에 올라온다. 영수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영희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동시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변한다는 개념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이때 영희가 측정한 위치와 시간을 X, t 라 하고 영수가 측정한 위치와 시간을 X', t' 이라 하면 두 관계는 다음과 같다.

$$X' = \frac{X - vt}{\sqrt{1 - \left(\frac{v}{c}\right)^2}} \quad t' = \frac{t - \frac{Xv}{c^2}}{\sqrt{1 - \left(\frac{v}{c}\right)^2}}$$

위의 수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와 시간을 관찰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 변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환을 로런츠 변환이라고 한다. 이를 앞서 제시한 갈릴레이의 변환식과 비교해 보면 수식에 빛의 속력 c 가 들어가 있다. 만일 여기서 c 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훨씬 더 커서 무한대라고 하면 X', t' 모두 분모는 그냥 1이 되어 버린다. 또한 분자는 X' 의 경우 ' $X - vt'$ '만, t' 의 경우 t 만 남는다. 결국 ' $X' = X - vt'$ '라는 갈릴레이의 변환식은 로런츠 변환식에서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관성 법칙: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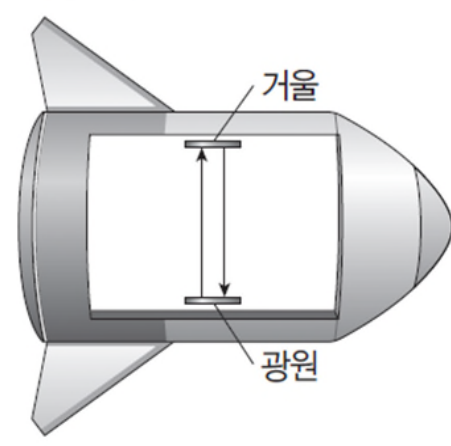
- ① 갈릴레이는 관성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였다.
- ②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가정을 하였다.
- ③ 갈릴레이의 이론에 따르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④ 관찰자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관찰자는 관성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지구에서 던져 올린 공이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을 던져 올린 사람과 공이 모두 수평 방향으로 지구와 같은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이다.

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동하는 물체가 사실은 관찰자처럼 정지해 있다는 말로군.
- ② 이동하는 물체가 사실은 관찰자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로군.
- ③ 정지해 있는 물체가 사실은 관찰자와 다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로군.
- ④ 정지해 있는 물체가 사실은 관찰자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로군.
- ⑤ 물체의 정지와 이동의 차이가 사실은 관찰자의 정지와 이동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말로군.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림과 같이 우주선 바닥의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우주선 천장에 있는 거울에 도달했다가 반사되어 처음 위치(광원)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시간의 단위로 하는 빛 시계를 설치하였다. 우주선 안에는 영수가 타고 있으며 우주선 밖에서는 영희가 우주선을 지켜보고 있다.

- ① 우주선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영수나 영희가 본 빛의 이동 거리가 동일하겠군.
- ②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날고 있는 경우 영수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는 정지했을 때와 동일하겠군.
- ③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날고 있는 경우 영희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는 정지했을 때보다 늘어나겠군.
- ④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우주선이 날고 있는 경우 영수의 시간과 영희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겠군.
- 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선이 날고 있는 경우 영희의 시간이 영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겠군.

11. ㉠과 ㉡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는 가정 하에 수립되었다.
- ② ㉠과 ㉡은 모두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는 가정하에 수립되었다.
- ③ ㉠에서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하면 ㉡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에서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하면 ㉠이 성립할 수 있다.
- ⑤ ㉡에서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고 가정하면 ㉠이 성립할 수 있다.

12. 윗글을 읽고 나는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이론가들의 이론이 서로 엮여있는 것을 보니 신기했어.
- ② 기존의 원리를 가지고 가설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해 보였어.
- ③ 수식을 직접 보며 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
- ④ 기존 계산법의 한계로 인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
- ⑤ 이동 중의 위로 던진 공이 왜 뒤로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지동설과 관련하여 함께 알게 되었어.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령화 사회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발생하는 고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54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숫자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게 되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은 14.3%이며, 2026년에는 20.5%로 예상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늦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에게는 크게 네 가지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신체적 노화에 수반되는 각종 노인성 질환 발생에 따른 건강 보호의 어려움, 정신적 측면의 노화에 수반되는 고독과 소외 및 갈등, 사회적 지위나 역할 상실로부터 수반되는 무력감이나 여가 선용의 어려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복지국가 원리를 헌법에 수용한 것이다. 특히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노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 의무를 ㉠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고령화 관련 국제 행동 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주택과 환경’의 권고 조항에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출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노인의 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과 적응 환경을 복구 및 개발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리모델링 및 개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말하며, 실내외 공간뿐만 아니라 제품과 환경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무장애 디자인’ 또는 ‘접근 가능한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용자의 연령·성별·신체적 조건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준형의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최대한 수용하는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 및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의 유연성이다. 이 원칙은 광범위한 수준의 개인적 선호도 및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 동작에 대해 높은 정확성과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

며, 사용자의 속도에 대한 적응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해야 한다.

둘째,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 능력, 집중력에 관계없이 사용함에 있어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고, 사용자의 예상과 직관에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고,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고, 작업 수행 중 및 종결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보의 지각성이다. 주변 조건이나 사용자의 감각 능력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요한 정보는 중복적인 제시를 위해 서로 다른 정보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중요 정보의 가독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류에 대한 관용성이다. 위험한 행위나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구성 요소들을 배열해야 한다. 즉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열하고 위험한 구성 요소는 제거하거나 분리하거나 덮개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위험과 오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경계가 요구되는 작업에서 무의식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우가 많아 주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냉수와 온수를 별도로 조절하는 원형 수도꼭지 대신 ㉡ 일체형 디자인의 수도꼭지는 손쉽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그 사용 범위가 매우 확산되었다. 또한 큰 길거리의 횡단보도에서 ㉢ 낮은 시간을 알려 주는 신호등 역시 유니버설 디자인의 예로 볼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의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 공학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그 외의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단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제품의 개발이나 연구에는 대부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노인을 위한 제품이나 시설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연구와 제품의 개발은 경제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의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13. (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령화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②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자세
- 시대에 따른 고령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③ 고령화 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대립적 시각
- 사회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중심으로
- ④ 고령화 사회의 의미 및 관련 법안
- 우리나라의 헌법 및 국제 원칙을 중심으로
- ⑤ 고령화 사회의 의미와 특징
- 고령화 사회의 발생 원인 및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14.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의 진입 시기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
- ② 고령자는 정신적인 어려움보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더 힘들어한다.
- ③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 ④ 고령자를 위한 제품 개발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⑤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은 청각적 신호를 함께 제공한다면 중요 정보의 지각성을 더욱 높게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 ④ ㉡은 간단한 시각적인 표시를 통해 남은 시간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과 ㉡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모두 오류에 대한 관용성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보기>는 (가)를 읽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우리 사회는 10년 이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보다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령자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법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 우리나라 헌법은 고령자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 장애인과 청소년 등 다른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보다 더 많은 정책을 고령자에게 펼치고 있다. 이렇게 고령자와 관련된 복지 사항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유엔 원칙의 조항에도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17.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시(揭示)하고
- ② 명시(明示)하고
- ③ 지시(指示)하고
- ④ 판시(判示)하고
- ⑤ 표시(標示)하고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흐니
그 모른 늪들은 운논다 흐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늪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 곳 뜰의 슬꺾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랴
말슴도 우웁도 아녀도 묻내 도하흐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江山)이 도타 혼들 ㉠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하얌: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낙뎡더라: 약았더라.
 *님천 한흥: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

18.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와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여러 속성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고자 하는 것을 통해 '산슈'와 더불어 생활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알 수 있다.
 - ② '보리밥 풋늑물'을 알맞게 먹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 '뛰집'에 거처하는 화자의 검소한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바회 굿 뭍'에서 실컷 노니는 것을 통해 '산슈 간'에서 생활하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잔 들고 혼자 안자' '님'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도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다.
 - ⑤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가 약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 '산슈 간'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만족스럽다고 여긴다.
 - ②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일이라고 여기고,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에 주어진 것이라고 여긴다.

- ③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도 경험해 보아야 하는 삶이라고 여긴다.
- ④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흥」은 윤선도가 해남의 금쇄동(金鎖洞)에서 기거하며 지은 노래이다. 윤선도는 정치 현실에서 잇따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번잡한 현실에 대한 번뇌를 씻고자 자연 지향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에서 은둔하는 삶에 대해 “경국제민(經國濟民)은 일찍부터 숭상한 바요, 세상을 등지고 은둔함은 본래 기약한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은거할 때에는 마땅히 세상 잇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만흥」에는 자연 지향 의식과 함께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경세 지향 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제1수>에서 '그 모른 늑들'은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을 지향하려 한 화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제2수>에서 '그 나쁜 너나쁜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서 은둔하며 지내면서 경세 지향 의식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제4수>에서 자연에서의 삶에 대해 '만승이 이만하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 비교하여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5수>에서 '드토리 업슨 강산'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으로 번잡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연 지향 의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6수>에서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게 되어 이를 값고자 하나 '희을 일'이 없다고 토로하는 것은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고 3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으나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나
 옛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균, 「상행(上行)」

(나)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를 운반하고 다니니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

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뉘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뀌어진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링: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링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링: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뀌진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네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 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구청에서 호적을 때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중략>

자양: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 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자양: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령: (늦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굵벙아,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령: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령: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북어 대가리 — ?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미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트렁크를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 ㉡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미스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임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손으로 ㉢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하지만 네 생각을 말해 봐. 만약에.....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대답이 없니? 멍뚱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 아냐, 내 물음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리 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구 판단해선 안 돼. (핸들카에 실린 상자들을 서류와 대조하며 제자리에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나는 의붓어미다! 정확하게 쌓아라! 틀리면 야단칠 테다!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이강백, 「북어 대가리」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③ 동일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④ 대상을 의인화하여 그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3. (가)의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낮익은 얼굴들’은 지금까지 ‘너’가 회피하려던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②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긍정적 현실의 모습을 고의로 외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즐거운 여행’은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너’의 열차 여행을 의미한다.
 ④ ‘아!’라는 감탄은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드러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⑤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을 의미한다.

24.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전수는 자양의 편지가 원래 주인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② 다령은 창고를 떠나는 기임보다 창고에 홀로 남은 자양을 더 염려하고 있다.
- ③ 운전수는 자양이 창고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인정했다.
- ④ 운전수는 창고지기인 기임이 다령과 함께 창고를 떠나는 것을 도우려 한다.
- ⑤ 자양이 편지를 쓴 것은 엉뚱하게 바뀐 상자를 원래 주인에게 되찾아 주기 위해서이다.

25. (나)를 바탕으로 공연을 준비할 때, ㉠~㉢에 대해 연출자가 배우에게 요구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운전수’에게 편지 전달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상황이므로, 애원하는 어조로 말하도록 하세요.
- ② ㉡: 갑자기 ‘다령’이 말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지은 채 혼잣말해 주세요.
- ③ ㉢: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자양’을 떠나려는 상황이므로, 화난 표정을 지으며 통명스럽게 말하세요.
- ④ ㉠: 떠나보내기 싫은 ‘기임’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상황이므로, 씩씩한 표정을 짓고 폴 죽은 목소리로 말하세요.
- ⑤ ㉢: 흔들리던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고 있으므로, 단호한 표정을 짓고 강한 어조로 말하도록 하세요.

26. (가)의 ㉠과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부정적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소재이다.
- ② ㉠과 ㉡ 모두 불행한 처지의 자신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대상이다.
- ③ ㉠은 과거에 지향했던 세상을, ㉡은 현재 지향하는 세상을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은 현재 생명력이 넘치는 화자의 삶을, ㉡은 현재 생명력을 잃은 인물의 삶을 상징한다.
- ⑤ ㉠은 현재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모두 급격히 진행되었던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가)는 외형적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이라는 긍정적 결과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도했던 세력에 의해 그 사실이 은폐되고 있음을 드러내려 하였다. 특히 작가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 모순에 눈감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나)는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산업화 사회에서 기계처럼 취급되는 현대인의 인간 소외 현상을 풍자하고 있다. 특히 경직된 사고를 지닌 등장인물의 행위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현대인에 닥친 비극이 앞으로 지속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에서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소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 발생한 사회 문제를 나타낸 것이로군.
- ② (가)에서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달라는 것은 사회 모순에 눈감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을 반어적으로 비판한 것이로군.
- ③ (나)에서 상자를 분배하고 접수하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 한 번 볼 수 없다는 것은 분업화된 산업 사회에서 마치 기계처럼 취급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로군.
- ④ (나)에서 아내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운전수’의 모습을 통해 획일화된 산업화 사회에서 경직된 사고를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극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 ⑤ (나)에서 ‘자양’이 홀로 남은 창고 안에서 정성스럽게 상자를 쌓는 장면으로 극이 마무리되는 것은 산업화 사회로 발생한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로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낙동강 주변 참모래 언덕이라는 뜻의 마삿등 마을에는 사람들이 판자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공공 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 중 황거칠 씨는 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산에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 쓰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어느 날 호동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산 수도의 땅이 자신의 형인 호동수가 국가로부터 매입한 땅이라며 산 수도의 철거를 통보한다.

황거칠 씨는 그 길로 일제 때부터 그 산을 보아 왔다는 박 노인이란 연고자를 찾아갔다.

“그래요?”

박이란 그 순적백성은 황거칠 씨의 말을 듣더니 비로소 미안스런 표정을 하며,

“㉠ 호동팔이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며 줄라 쌓길래 도장을 안 찍어 조웃능기요. 머 연고권 서류라카등가요. 내싸 머 그런 거 불하받을 생각도 힘도 없고 해서…….”

㉡ 황거칠 씨는 ‘아뿔싸!’ 싶었다. 손이 늦었었다. 그러나 손이 안 늦었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걸 불하받을 돈이 있을 리 만무했

다.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죽일 놈들!”

해 보았댔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황거칠 씨는 대범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산에서 솟는다고 산 임자의 물은 아닐 테지! 그때까지만 해도, ㉠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속으로 다짐했던 것이다.

그날 밤 실근이란 통장이 알아보고 온 얘기로서는 S산의 일부인 ‘마삿등’ 뒤의 적산 임야 일대가, 얼마 전 동팔의 형 동수의 명의로 완전 불하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 돼서 법원으로부터 출두 통지서가 나왔다. 호동수가 수도 시설을 철거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물론 황거칠 씨는 이의를 내걸고 반대했다. 그러나 끝다 끝다 결국 힘 부족 세 부족으로 재판에 지고, 집달리가 현장에 나타났다. 강제 철거다. 미리 시끄러울 것을 짐작했던지 경찰관까지 현장에 동원되었다. ‘마삿등’에서도 그날은 일을 나가지 않은 사내 꼭지들은 거의 다 현장인 샴터에 나와 있었다. 아낙네들도 더러 나왔었다. 군중 심리의 탓이랄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일촉즉발의 험악한 공기로 되어 갔다.

황거칠 씨는 내처 풀이 죽어 있었다. 정상 작량(情狀酌量)도 법을 권사람의 자유다. 게다가 집달리란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도 인정도 없게 마련이다. ‘마삿등’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다섯 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팽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 하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팽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그것을 계기로 부락민들도 와 몰려갔다. 집달리 일행과의 사이에 별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결국 동팔이와 인부 한 사람이 이쪽 청년들의 편치에 코피가 터졌다. 경찰은 발포를 —다행히 공포였지만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 집행도 일시 중단되었다.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공무 집행 방해에다, 산주의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나오질 못했다. 쌍말로 썩어 갔다. ㉡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되지 않았다.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찰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석방의 조건으로서, 다시는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 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삿등’은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일행이 구류간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팔이가 ‘마삿등’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죽일 놈!”

하고, ㉢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에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물론 헐값으로), 정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꼽게도 이쪽의 약점

을 노린 수작이었다.

“가거라, 이 개 같은 놈아! 밥을 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다녀?”

황거칠 씨는 벼락같은 소릴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음 내버렸지, 동팔이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 경영 따위 쓸개 빠진 짓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왔던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처 주먹을 떨어 댔다.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던가? 뻔뻔스런 놈 같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늘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 들어서 파는 ‘두꺼비집’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동팔이와 특별한 관계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일을 맡아 있다든가, 인척 관계인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드디어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어디 제 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 김정환, 「산거족」

2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대비하여 인물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과거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른 다양한 시점을 통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호동팔’이 사리에 어두운 노인을 이용해 땅을 샀음을 나타낸다.
- ② ㉡: ‘호동팔’의 계락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
- ③ ㉢: 산 수도를 지키려는 ‘황거칠’의 의지와 집념을 나타낸다.
- ④ ㉢: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 쫓값을 받으려는 ‘황거칠’의 희생정신을 나타낸다.
- ⑤ ㉢: ‘호동팔’이 ‘황거칠’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 3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거칠’은 산 수도의 땅을 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처지에 처해 있다.
 - ②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호동팔’의 물을 쓸 수밖에 없었다.
 - ③ ‘황거칠’은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 ④ ‘마삿등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파괴됐던 우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 ⑤ ‘황거칠’은 ‘호동수’의 소유가 아닌 곳에 새로운 수도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산거족」은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유린하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권력자에게 유리한 법의 모순과 진정한 정의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① ‘수도 시설을 철거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힘없는 서민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권력자의 횡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뺨이에 무참히 헐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법의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
- ③ ‘한 인부의 뺨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치는 것은 권력자에게 유리한 법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담당 경찰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한 것은 자신의 요구 조건이 일부 수용되었기 때문에 권력자와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애써 만든 산 수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에 의해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서민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어.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백공은 비복을 시켜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질을 하라고 호령하였다. 사정을 두지 않고 마구 치는 비복들의 매 밑에서 숙영 남자의 백옥 같은 귀밑에는 피멍을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눈같이 흰 살결은 핏물이 배어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남자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고통을 참고 이를 악물며 말하였다.

“지난번에 낭군께서 길을 떠난 날 밤과 그 이튿날 밤, 두 번을 삼십 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하고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습기에 제가 한사코 타일러서 다시 돌려보낸 일은 있었사옵습니다. 그때는 어린 제 소견으로 시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 봐 겁을 내어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하오나 조물주가 그것을 밋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하여 이런 씻지 못할 누명을 입은 듯하옵니다. 이제 와서 늦은 변명같이 되었사오나, 밝은 하늘이 날날이 살펴 아시오니 아버님께옵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시어 저의 정상을 다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번 눈과 귀로 확인한 의심인지라, 백공은 점점 더 노하여 비복에게 더욱 심한 매질을 가하도록 호령하였다. 남자는 참을 수 없는 매 밑에서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다.

“아아, 푸른 하늘은 무고한 이내 몸을 굽어살피소서. 오월에 서리가 내리고 십 년을 원망해야 할 이 원한을 어느 누가 풀어 주오리이까?”

하고는 엎어져서 혼절하고 말았다. 이 참상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울면서 영감에게 말하였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 하였사오니, 영감께서 사실도 잘 모르시면서 티 없이 굳은 정절을 가진 며느리를 억울하게 음행(淫行)의 죄를 씌워 다스리시니, 만약 며느리의 무죄함이 밝혀졌을 때 무슨 면목으로 현부를 대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뜰 아래로 뛰어 내려가 남자를 부여잡고 목을 놓아 울었다.

“너의 백옥같이 티 없는 굳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런 변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니 그 아니 원통하겠느냐?”

남자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옛말에도 다른 소문과는 달리 음행의 소문을 씻기는 어렵다 하였사온 즉, 동해 바닷물을 모두 기울인다 한들 이 누명을 씻으오리까? 이런 씻지 못할 누명을 쓰고 어찌 구차히 살기를 바라오리까?”

시어머니는 남자를 가엾게 여기고 갖은 말로 무수히 위로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듣지 않고 바른 손에 옥비녀를 빼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절을 한 다음 빌었다.

“밝고 밝은 저 황천(黃泉)은 부디 굽어살피소서. 제가 만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이 있거든 이 옥비녀가 제 가슴팍에 꽂히고, 이것이 억울한 누명이거든 이 옥비녀가 저 섬들에 박히도록 영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는, 옥비녀를 허공에 높이 던지고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잠시 후에 옥비녀가 떨어지면서 섬들에 깊이 박히었다.

(중략)

그렇게 행차하여 남으로 사흘을 간 후에 백선군이 잠시 피로를 풀고자 주점에 들러 쉬고 있는데, 문득 졸음이 와서 눈을 감으니 비몽사몽간이라. 숙영 남자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선군의 옆에 앉더니 절통하게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었다.

“낭군께옵서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오시니 기쁘기 그지없사오나, 저는 이미 박명하여 이 세상을 버리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었나이다. 일전에 낭군님의 편지 사연을 들으니, 낭군께서 저에 대한 사랑은 간절하시오나, 이것 또한 저의 연분이 척박하여 별써 이 세상을 하직하였으니, 구천의 혼백이라도 한스럽기 그지없사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원통한 사연을 낭군께옵서 풀어 주시어 편히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씻기로 아직까지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구천을 방황하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낭군께서는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시시비비를 가려 누명을 벗겨 주시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되고자 하나이다.”

하고 나서는 남자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선군이 크게 놀라 ㉠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축축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선군은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연유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인마를 재촉하여 서둘렀

다. 며칠만에 풍산 마을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으나, 낭자 생각에 골몰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하인이 와서 이르기를,

“대상공(大相公)께서 오셨나이다.” 하였다.

아들을 만난 백공은 망설이다가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고 거짓으로 알리고는 선군이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연을 물으면서 억지로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선군을 향해 은근한 말로 권유하였다.

“장부가 뜻을 얻으면 아내를 얻는 것이 고금의 상례로 되어 있다 하니 너도 이제 그렇게 함이 좋을 듯하구나. 듣자 하니 이 마을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 하므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혼례 일자를 잡아 놓았으니, 이곳에 온 김에 내일 당장 육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군은 숙영 낭자가 꿈에 나타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일을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막상 부친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보니 이상한 마음이 들어 생각하되, ‘부친께서 이렇듯 나에게 재취를 권유하시는 것을 보니, 숙영 낭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임 낭자와 결혼하게 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하고는 당장 부친께 말씀드렸다.

“아버님 말씀은 지당하시오나, 소자의 마음은 급하지 않사오니 나중에 청혼하여도 늦지 않을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니 그 말씀은 지금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들의 성질을 잘 아는 백공은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근심 속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첫닭이 울고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선군은 행졸(行卒)을 재촉하여 곧바로 안동으로 향하였다.

(중략)

선군은 냇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아내의 빈소로 가서 크게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집안의 모든 남녀 노복들을 한 자리에 묶어서 마당에 꿇어 앉혔다. 그 가운데 매월이도 끼어 있었다. 선군이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빈소로 들어가 이불을 벗기고 보니 마치 살아 있는 듯 조금도 살이 썩지 않고 있었다.

선군은 울음을 삼키면서, ‘이제 내가 왔으니 낭자는 부디 안심하라. 가슴에 박힌 칼이 빠진다면 그 칼로 원수를 갚아 낭자의 원혼을 달래리라.’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칼을 잡고 당기니 가볍게 썩 빠지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낭자의 가슴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하고 세 번을 울고는 날아갔다. 조금 후에 또 다른 파랑새가 날아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하고는 또 세 번을 울고는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선군은 매월의 질투 소행인 줄을 알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형틀을 갖추고 모든 노복들을 차례로 문초하고 매질하였다. 하지만 죄가 없고 또한 비밀도 모르는 노복들이 어찌 진실을 말할 수 있으랴? 마지막으로 매월을 끌어내다가 문초하였으나 간악한 매월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죽을 때까지 사정 두지 말고 매우 처라!”

추상같은 선군의 호령에 좌우 사령들이 매월을 향해 사정없이 매질을 가하였다. 매가 백 장(杖)에 이르자, 무쇠 같은 몸인들 어찌 터지지 않고 배기랴? 그토록 모진 매월도 절반은 뉘이 나가서

개개승복(個個承服)*하면서 빌었다. 그리고 사건 전말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숙영 낭자가 이 덕 본실로 들어온 후로 선군이 자기를 멀리하고 낭자만 총애하기에, 질투가 생겨 그 원통한 마음을 풀려고 그와 같은 간계를 꾸며 낭자에게 누명을 씌웠노라고 하였다. 선군은 즉시 공모한 불량배 둘이를 잡아다가 문초를 하였다. 그런 결과 매월의 꼬임으로 돈에 팔려 숙영 낭자의 방에 드나드는 외간 남자처럼 꾸며서 백공의 의심을 사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에잇,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아!”

선군은 노기가 충천하여 칼을 들고 뜰로 내려와서 매월의 목을 한칼에 베어 버렸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개개승복: 지은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자백함.

3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시켜 사건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작중 상황에 대한 작품 밖 서술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배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풍자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33.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은 선군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며 이야기의 화제를 돌리고 있군.
- ② 선군은 임 낭자와의 육례를 권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숙영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군.
- ③ 선군의 어머니는 숙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며느리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리고 있군.
- ④ 매월이 느낀 선군에 대한 원망과 숙영에 대한 시기가 백공 집안의 갈등을 초래하는군.
- ⑤ 백공은 임 진사 집안과의 혼담을 통해 입신양명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군.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력자를 통해 인물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인물에게 닥칠 부정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이 된다.
- ③ 인물이 부재중에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④ 현재와 대비되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
- ⑤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실에 대한 인물의 체념적 정서를 강조한다.

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관은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동아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학생회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인 ㉠ **심사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 **추첨 방식**을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1: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평가자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추첨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첨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2: 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 [A]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 준비가 덜 된 동아리가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찬성1: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므로,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1: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방식은 모든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1: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 [B]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반대1: 그 문제는 평가 기준의 일부를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5.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1’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찬성1’은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1’은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 ⑤ ‘반대1’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믿을 만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 따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37.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측은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 ㉠의 문제점을 ㉡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을 옹호하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을 지지하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이 ㉠보다 더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38~42] (가)는 학생회에서 진행한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장'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0월에 열릴 체육 대회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 학교 체육 대회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열렸던 체육 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자 1: 작년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체육 대회의 종목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는 오전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단축 마라톤, 오후에는 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달리기 종목만 진행되니 학생들의 호응이나 만족도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A] 참여자 2: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단축 마라톤의 경우,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다 보니,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불평하며 참여하는 시늉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 3: 다들 알겠지만 단축 마라톤은 학교에서 벗어나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보니 안전 문제도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옆에서 달리는 차량을 의식하여 제대로 달리는 것도 어려워 학생들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 대회 종목이 적고,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종목이 있으며, 안전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분석해 보면 결국 단축 마라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축 마라톤을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체육 대회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여자 1: 네, 그동안 단축 마라톤을 진행하다 보니 오전에 다른 종목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만약 단축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면 오전에 더 많고 다채로운 종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나 피구, 농구 등 종목이 다양화되면 그만큼 많은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B] 참여자 2: 종목이 다양해지면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가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반 대항 단체 줄넘기 또는 단체 줄다리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 3: 단축 마라톤 대신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하루 동안 반 대항 경기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반 대항 종목의 예선전을 체육 대회 전에 미리 하면 어떨까요?

참여자 1, 2: 네, 좋습니다.
 학생회장: 네, 지금까지의 토의를 종합해 보면, 단축 마라톤을 이번 체육 대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 반 대항 종목은 진행 일정을 미리 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김○○입니다. 올해 10월에 교내 체육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는 전교생이 모두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토의 참여자들은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가 달리기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오전에 진행되는 단축 마라톤에는 체육 대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로부터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대회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건다시피하며 반환점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축 마라톤 코스가 교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언제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관할 지역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기는 했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생들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생회에서는 단축 마라톤 경기를 폐지하고 대신 축구, 피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며, 대회의 취지에 맞게 단체 줄넘기나 단체 줄다리기와 같은 반 대항 경기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모든 경기를 하루에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를 하실 수 있으나, 이는 예선전은 체육 대회 전 방과 후에 틈틈이 진행하고, 결승전만 당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의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리면서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적으로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을 맺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8. (가)에서 '학생회장'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언급하며 토의 의제를 제시하였다.
- ②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중간에 요약, 정리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 ③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며 토의 방향을 이끌었다.
- ④ 토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다음 논의를 예고하며 토의를 마무리하였다.
- ⑤ 토의 참여자의 진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의 결과의 활용

방안을 언급하였다.

39.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참여자 2는 자신이 참여자 1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② [A]: 참여자 2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자 1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③ [A]: 참여자 3은 참여자 1, 2와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이들의 의견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 ④ [B]: 참여자 2는 참여자 1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B]: 참여자 3은 참여자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0.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학생회장’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문단

- 교내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건의 목적을 제시해야겠어.㉠

2문단

- 학생들이 교내 체육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내 체육 대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야겠어.㉡

3문단

- 교내 체육 대회에서 진행 가능한 운동 종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건의 내용에 대해 학교 측에서 보일 수 있는 우려를 제시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4문단

-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때 교내 체육 대회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1. <보기>는 ‘학생회장’이 (나)를 작성한 후 찾은 자료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을 보완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설문 결과(설문 대상: 우리 학교 학생들 / 복수 응답)

㉤ 선호하는 경기 종목(단위: %)

축구	농구	줄다리기	피구	기타
68	54	72	35	21

㉥ 체육 대회에 불만족하는 이유(단위: %)

(ㄴ) 인터뷰 자료

“단체 경기는 개인 경기와 달리 혼자 힘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으며,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 행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① (ㄱ)의 ㉤, ㉥와 (ㄴ)을 활용하여, 원래 체육 활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줄다리기는 선호하므로 반 대항 줄다리기를 신설하면 체육 대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ㄱ)의 ㉤와 (ㄴ)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단체 경기인 줄다리기를 진행하면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체육 대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ㄱ)의 ㉤와 ㉥를 활용하여, 대회의 종목이 다양화되면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종목에 참여할 수 있어 체육 대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ㄱ)의 ㉥를 활용하여, 단축 마라톤을 체육 대회 종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ㄴ)을 활용하여, 반 대항 경기가 신설되면 반별 협동심을 고취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42. (가)에서 ‘학생회장’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의 참여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올바른 태도를 요구한다.
- ② 토의 참여자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한다.
- ③ 토의 순서에서 벗어난 참여자를 지적하며 올바른 순서로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한 후 자신의 말로 재진술한다.
- ⑤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43~45] 다음은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릴 건의문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도서관 관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 ○○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다양하여 학교 과제를 위한 자료 수집도 편리하고 열람실 환경도 매우 쾌적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 그래서 저도 방과 후나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수행 평가자료도 찾고,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에서 늦은 시각까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지역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편안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도서관 3층에 있는 노트북 열람실의 경우 좌석 수가 50석이 채 되지 않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서 노트북 열람실을 방문했는데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서 ㉡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노트북 열람실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을 관장님께 건의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노트북 열람실에 가 보면 이용자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 성인 이용자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하루 종일 노트북 열람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자리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 열람실을 이용하기가 매우 ㉣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 청소년 전용의 노트북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간 확보가 어려워 따로 전용실을 만들기가 힘들다면 기존의 노트북 열람실 일부를 청소년 전용 열람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청소년들의 노트북 열람실 이용 시간이 주로 방과 후나 저녁 시간대이므로 특정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전용 구역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학교 과제로 UCC를 제작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발표문을 만드는 등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어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노트북 열람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열람실의 좌석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열람실을 사용하지 못하면 카페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게는 카페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도서관 내에 청소년 전용의 노트북 열람실 좌석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공부하고 과제도 할 수 있게 되어 도서관의 효용 가치도 매우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 내용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43. 윗글에 나타난 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 ② 경어체를 활용하여 자신이 건의하려는 내용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건의 내용이 수용되기를 기대하며 예상 독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도서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글을 쓰

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⑤ 건의 내용이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4. 다음은 윗글을 쓰기 전에 검토한 건의문 작성 시 유의 사항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 내용 조직하기: 건의문은 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해야 하지만 감정적 호소를 할 수도 있음. 각 단계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 처음: ㉠ 인사말, 건의자, 건의문을 쓰게 된 이유를 제시함.
- 중간: ㉢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
- ㉣ 예상 독자가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도 첨부함.
- 끝: ㉤ 건의 내용을 요약하고 건의가 수용될 경우의 긍정적 기대와 감사의 말을 전함.

○ 표현하기: 건의문은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글을 표현해야 하며, ㉢ 예상 독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의 지위에 맞는 표현으로 글을 작성해야 함. 또한 건의문은 독자에게 전달될 매체를 고려해 글을 작성함.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5.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 문장과 서로 위치를 바꾼다.
- ② ㉡: 문장의 시제를 고려하여 ‘이용하지 못했습니다’로 수정한다.
- ③ ㉢: 같은 문장 내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 ‘성인들입니다’로 수정한다.
- ④ ㉣: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므로 ‘어려운’으로 수정한다.
- ⑤ ㉤: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접속 부사이므로 ‘따라서’로 수정한다.

언어와 매체

35. 다음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뽕냐?[뽕랴], 뽕냐?[뽕랴], 뽕냐?[뽕랴]
 ㉡ 막일[망닐], 색연필[생년필], 한국 요리[한:궁노리]
 ㉢ 물약[물랴], 불여우[불려우], 들일[들:릴]

- ① 첨가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② 음운의 개수를 바꾸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③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되었다.
- ④ 앞선 자음의 영향으로 뒤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⑤ 음절 끝의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바꾸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36.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 ② ㉡에는 ㉠은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 ④ ㉣에는 ㉠은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높임법이라고 한다. 높임법은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말하는 이보다 서술어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한다.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오셨다.’와 같은 문장에서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동사 ‘들어오-’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되었다. 객체 높임법은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다.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여쭙어보라.’와 같은 문장에서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 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특수한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나타내었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지우야, 버스 왔어.’, ‘할아버지, 버스 왔습니다.’ 등의 예를 보면,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종결 어미가 달리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자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 ‘지우’일 때, 동사 어간에 해체 종결 어미 ‘-어’가 결합했고, 청자가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일 때,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습니다’가 결합했다. 현대 국어의 높임법은 그 실현 방식이 서로 다르다.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고 객체 높임법은 주로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나 보조사 ‘요’를 통해 실현된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대상을 높이는 범주이지만, 상대 높임은 대상을 어느 정도 대우하느냐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뉜다. 한 문장 안에서 주체, 객체, 상대를 다 높이는 경우가 있고, 셋 중 하나만 높이는 경우도 있고, ㉠ 셋 중 둘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한편,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러한 높임법들이 모두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중세 문헌 『월인석보』에 실린 문장인 ‘부테 百億(백억) 세계(세계)에 化身(화신)하야 教化(교화)하샤미(부처가 백억 세계에 화신하여 교화하심이)’에서는 주체인 부처를 높이기 위해 동사 ‘教化하-’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였다. 또 같은 시기 문헌인 『석보상절』에 ‘내 王(왕) 말씀 듣고사 내 ㅁ슴미 씨든과이다(내가 왕 말씀 듣고서야 내 마음이 깨달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듣다’의 목적어인 ‘王 말씀’이 높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 ‘듣-’에 선어말 어미 ‘-즈-’이 결합하였고 문장을 듣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동사 ‘씨든-’에 선어말 어미 ‘-이-’가 결합하였다. 선어말 어미 ‘-시-’는 중세 국어 시기부터 현대 국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주체 높임의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선어말 어미 ‘-즈-’과 ‘-이-’는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 ‘-습니다’에 흡수되었다. 이 때문에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로 실현되고 객체 높임법은 특수한 어휘 형태를 사용하여 나타내게 되었다.

37. <보기> 중 ㉠에 해당하는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
 ㉡.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습니다.
 ㉢. 어머니께서 형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 형님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신다.

ㄱ. 형이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38. 윗글의 ㉠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시-’는 현대 국어의 ‘-시-’와 주된 기능이 같다.
- ②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줍-’은 그 높임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 ③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이-’는 현대 국어의 ‘하오체’와 그 높임의 등급이 비슷하다.
- ④ 중세 국어의 높임법과 달리 현대 국어의 높임법 중 주체 높임법만 문법 형식으로 실현된다.
- ⑤ 현대 국어의 ‘-습니다’에는 중세 국어 ‘-줍-’의 기능과 ‘-이-’의 기능이 모두 들어 있다.

39.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수빈, 나경, 세은이 대화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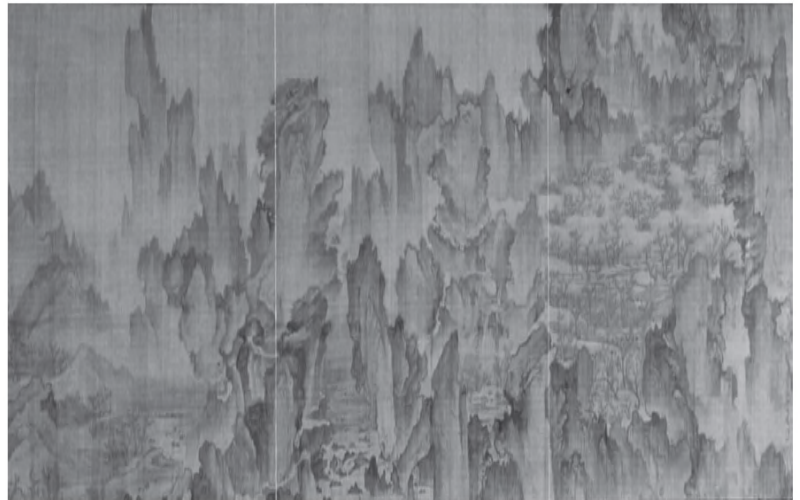
수빈: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나경: 고마워.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세은: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은데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수빈: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우리끼리 가지, 뭐.
 나경: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우리 다 같이 가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0~42] 다음은 매체 미술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모뎀 수행 과제 중간발표를 맡은 모뎀 대표 ○○○입니다. 저희 모뎀은 ‘한국화와 멀티미디어 기술의 만남’을 테마로 하여, 한국화 감상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보여 드릴 멀티미디어 자료의 핵심이 되는 안건의 <몽유도원도>와 네덜란드의 화가인 호베마의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을 보여 드리면서, 한국화의 특성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발표 내용을 반영하여 저희 모뎀에서 제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국화에서의 자연은 서양의 풍경화에서처럼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풍경화가 한 지점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한다면, 한국화는 자연 속의 다양한 지점에서 바라보고, 훑어보고, 내려 보고, 올려 보는 시선을 반영합니다. 한국화의 특성은 이동 시점과 산점 투시라는 기법으로 구현됩니다. 이동 시점은 눈이 머물거나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시점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화가가 사색하거나 체험하는 자연에 대한 시선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산점 투시는 화가가 다양한 지점에서 사색하거나 체험한 대상에 대한 시선들을 한 작품 속에 모두 구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기법은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변화를 함축합니다.



[자료 1]

(‘자료 1’을 제시하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 1’은 안견이 안평 대군의 꿈을 토대로 상상하여 그렸다고 알려진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작품은 꿈에 들자 만나게 된 골짜기의 오솔길과 흙 언덕, 험하고 기괴한 바위산, 복사꽃이 만발한 도원동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산수화와 달리 이 작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꿈속에 나타났던 장면이 점점 강조되며 파노라마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세계를 표현한 왼쪽의 오솔길과 흙 언덕은 정면에서 보는 시점으로 그려져 있고, 이상적 세계를 표현한 오른쪽의 바위산은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시점에 따르는 서양화와 달리, 상하와 좌우의 거리 조정, 성감과 뻗뻗함의 변화 등을 그때그때의 다양한 시점에 따라 다채롭게 표현하는 산점 투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료 2]

(‘자료 2’를 제시하며)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작품과 비교해 보면 <몽유도원도>의 특징이 훨씬 잘 이해될 것입니다. 원근법을 대담하게 사용하여 부드러운 빛이 넘치는 전원을 표현한 작품으로, 하나의 고정된 시점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서양 풍경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한 화면에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자연을 관찰의 대상으로 보고 단일한 시선으로 재현하는 서양화와 달리, 한국화에는 화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연의 면면을 각각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한국화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든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40. 위 발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체 자료와 관련지어 발표할 내용을 언급하며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군.
- ② 매체 자료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군.
- ③ 발표에서 전달하고자 한 핵심적인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군.
- ④ 매체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의 특성을 시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군.
- ⑤ 매체 자료에서 확인되는 시각적인 특성을 대비하며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군.

41.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자료 1’은 실제 자연을 그린 작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면 작품 속에 그려진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지?
- ‘자료 1’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 풍경이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다양한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겠네.
- ‘자료 1’처럼 소중한 문화유산에 현대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

운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드는 활동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쉬워.

- ‘자료 1’이나 ‘자료 2’가 의미 있는 자료이지만, 발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작품을 예시로 활용해서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어.

- ①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을 예측하며 듣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배경지식을 비교하며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발표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발표에서 설명한 내용을 관련지으며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⑤ 발표자가 속한 모둠의 과제 수행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발표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2. 발표 후 발표자가 속한 모둠의 학생들이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계획을 논의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표: 오늘 발표에서 한국화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자료를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말해 보자.

학생 1: 한국화에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변화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화가를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만들어 <몽유도원도> 속 공간을 이동하게 하면서 캐릭터의 시선 방향을 통해 작품 속 시점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구현해 보자. ①

학생 2: <몽유도원도>의 공간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기기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화면을 스크롤 하면 세 영역이 가상의 선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도록 구현해 보자. ②

학생 3: <몽유도원도>와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이 대상에 대한 관찰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작품 밖의 한 지점에서 화가 캐릭터가 고정된 시선으로 작품에 그려진 대상을 바라보도록 구현해 보자. ③

학생 4: <몽유도원도>와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은 표현한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작품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부분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해 보자. ④

학생 5: <몽유도원도>와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은 화가의 시선이 고정되는지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나란히 배치하고 화가의 시선이 모이는 지점을 가상의 선으로 표시하여 작품의 차이가 두드러지도록 구현해 보자. ⑤

[43~45] (가)는 종이 신문의 한 면이고, (나)는 (가) 신문의 인터넷판 누리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3면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사회 제2571호 ○○신문

'물 폭탄'은 온난화 나비 효과 북극·시베리아 이상 고온에 동아시아 비 세례

올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인 장마와 폭우는 북극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상 고온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극과 시베리아 일대의 기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눈과 빙하가 녹아 지표면이 태양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따뜻한 공기가 정체돼 등에서 서로 움직이던 찬 기류가 남북으로 움직이며 동아시아 쪽으로 밀려왔다.

기상청 관계자는 "나비 효과처럼,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이상 폭우를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 기상학과 □□□ 교수는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찬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온 탓에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해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 폭우뿐만 아니라 이상 한파 등 다양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기자 seo@x.x.kr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인권위, 이번 달 중 학습 지도안 배포 예정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번 달 중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차별·괴롭힘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의 유형과 예방·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 거액 기부

수재 구호금 1억 원 쾌척

배우 ◇◇◇ 씨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억 원을 구호 관련 단체에 쾌척한 사실이 4일 알려졌다.

(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회 최신 기사 교육 노동 사건 사고

화재 구조 외국인 노동자 '의상자' 인정
불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큰 화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의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
2020. 8. 4. 21:06

◇◇◇, 거액 기부
배우 ◇◇◇ 씨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억 원을 구호 관련 단체에 쾌척한 사실 ...
2020. 8. 4. 20:30

'물 폭탄'은 온난화 나비 효과
올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
2020. 8. 4. 20:23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국가 인권 위원회(인권위)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 ...
2020. 8. 4. 20:15

완료

43.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기사가 게재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표제와 부제로 내용을 함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시각 자료의 의미가 글의 의미와 결부되어 해석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매체 특성상 시간 순서에 따라 기사를 정렬하여 게시하기 쉽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기사의 본문을 일부만 노출한 상태에서 독자가 자세히 읽고 싶은 기사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신문에는 편집자와 기자의 관점이 반영된다. 그중 편집자의 관점은 주로 기사의 선택과 배열에 의해 지면에 구현된다. 여기서 기사의 선택과 배열이라 함은 편집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지면에 들어갈 기사와 지면에서 배제될 기사를 선택하고 지면에서 각 기사가 차지할 위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

기자의 관점 또한 신문에 반영된다. 기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어떤 주제로 기사를 쓸 것인지, 누구와 인터뷰할 것인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등을 선택한다.

- ① 편집자가 달라진다면 (가)에는 다른 기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군.
- ② 표제에서 ‘폭우’ 대신 ‘물 폭탄’을 사용한 것은 편집자가 기사의 선택과 배열을 행한 결과이겠군.
- ③ 폭우가 온 사실 자체보다 폭우의 원인을 탐색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은 기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택한 결과이겠군.
- ④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에 대한 기사와 거액 기부에 대한 기사의 배열 순서에도 편집자의 관점이 반영되었겠군.
- ⑤ 기상청 관계자 및 기상학과 교수와의 인터뷰가 기사에 포함된 것은 기자의 관점이 신문에 반영된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화면에 각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들로 이루어진 목록이 나타난다. 독자는 목록 중에서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하면 되니 참으로 편리하다. 그러나 검색 결과 화면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가 서로 비슷한 내용일 때도 많은데, 마치 기사들이 읽히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기사 목록은 수시로 바뀐다.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같은 언론사가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리기도 한다. 오타자나 비문이 포함된 기사들도 간혹 발견된다. ‘속보’라고 이름이 붙은 기사 중에는 표제만 있고 본문이 아예 없는 경우까지 있다. 독자에게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으로 인해, 내용과 표현이 충실한 기사만을 내보내는 선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 ① (나)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결과 화면에는 공통된 특징이 없군.
- ② (나)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결과 화면처럼 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군.
- ③ (나)에는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린 흔적이 남아 있군.
- ④ (나)에 표제만 있고 본문이 없는 기사가 향후에도 올라오지 않으려면 ‘선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겠군.

⑤ (나)에서 기사 본문으로 이동했을 때 오타자가 보이더라도 이를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는 없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답 및 해설

1	①	2	②	3	④	4	⑤	5	④
6	④	7	③	8	③	9	④	10	⑤
11	④	12	④	13	④	14	③	15	⑤
16	④	17	②	18	①	19	④	20	②
21	②	22	③	23	④	24	②	25	③
26	⑤	27	④	28	①	29	⑤	30	④
31	④	32	③	33	⑤	34	③	수고하셨습니다.	

[1~3] 독서-독서
[지문 분석]

내 본격적인 독서 **편력(여러 가지 경험을 함.)**은 20세 때에 시작된다.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나는 시립 도서관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온갖 책들을 읽었다. 도서관의 책들을 다 읽을 기세로 덤벼들었으나 물론 그것은 터무니없는 꿈이었다. 나는 날마다 책 한 권을 읽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랐다. **반가통(半可通)(사물의 이치를 어렵듯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어렵듯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면, **전가통(全可通)(사물의 이치와 앎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 사람이 깨치고 알아야 할 사물의 이치와 앎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시립 도서관에서 전가통의 세계를 꿈꾸었다.

1문단: 다양한 독서를 통한 전가통의 앎 추구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기초 소양이 되는 앎은 반가통의 앎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반가통의 앎이 진리로 두루 통용되는 사회(책을 읽지 않는 사회)**이다. **늑대들의 울부짖음('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한 말. 진리와 반대되는 부조리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반가통의 세계에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늑대들의 울부짖음이 진리를 대신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누구나 알다시피 **[** 우리 사회는 대충 알고, 모르는 것은 관습과 관행으로 지탱하는 반가통의 사회이다. 지적으로 나태해도 그럭저럭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이다. 적당히 아는 것만으로 사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다들 나태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낙오될 염려도 없다.](**[** : 우리 사회의 문제점)

2문단: 반가통의 앎이 지배하는 사회

나는 **동과 서, 옛것과 새것들을 두루 찾아 읽으며(편향되지 않은 독서 편력)** 전가통의 앎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청년 시절을 보냈다. **희망 없는 내일과 궁핍이 의식을 옥죄었지만 날마다 책들을 읽는 것으로 그 고통을 견뎌 냈다.(힘든 상황에서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음.)**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생업에 전력 투구하던 시절은 아주 암울하고 빈곤한 시절(반가통의 독서를 하던 시절)**이었다. 반가통의 독서로 겨우 연명하고, 늘 알 수 없는 결핍감과 불행한 느낌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생업에서 풀려나온 뒤로 나의 독서 편력은 다시 활력을 찾고 풍요로워졌다.

3문단: 전가통의 앎을 추구하는 즐거움

나는 날마다 책 한 권 읽기를 실천하는 원칙(필자의 독서 방법)을 따르려고 애쓴다. 책과 친해지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책에 몰입(책과 친해지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①)**한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책에 흠뻑 빠져든다. 둘째, **책을 읽는 즐거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책과**

친해지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②) 책 읽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렵다. 셋째, **읽어야 할 책들을 꼼꼼하게 고르고 그것들을 사들인다.(책과 친해지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③)**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책 읽기는 시작된다. 넷째, **읽은 책들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책과 친해지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④)** 읽은 것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억은 상상력을 한정하지만, 망각은 **무한한 상상력의 텃밭을 일구는 쟁기('망각'을 비유한 말)**이다. 그런 까닭에 **망각은 풍요로 나아가는 길(망각의 가치를 높이 삼.)**이다.

4문단: 지속적 독서를 위해 책과 친해지는 방법

보르헤스는 우주를 거대한 도서관으로 상상한다. 우주가 곧 책 한 권이다. 우주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읽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읽어 갈 책이다. **우리는 책이라는 낙타를 타고 우주라는 사막을 타박타박 횡단하는 중이다.(독서를 앎에 대한 여행에 비유함.)** 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 원리에 비추어 보자면 불가피한 욕망이다. **그 욕망(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는 욕망)**이야말로 문명의 진화를 추동해 온 힘이다. 책 읽기를 그친 세계에서는 문명의 역동적인 발전도 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세계는 쇠퇴하고 소멸할 것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한 권이나 두 권씩 읽어 치우는 것은 책 읽기에서 찾는 즐거움 때문이다. **나는 읽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임. → 앎에 대한 욕망과 책 읽기의 즐거움 때문에 책을 읽음. → 나는 독서를 통해 인간으로 존재함.)**

5문단: 인류 문명의 발전을 추동해 온 독서

[지문 정리]

■ 주제: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얻는 효용과 지속적 독서를 위한 방법

■ 해제: 이 글은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이어 온 글쓴이가 자신이 생각하는 독서의 효용과 책과 친해지는 방법을 소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글이다. 글쓴이는 다양한 책들을 두루 찾아 읽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과 친해지는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책에 몰입하기, 독서의 즐거움 찾기, 어떤 책을 읽을지 계획하기,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 매달리지 않기 등이다.

■ 문단별 정리

1문단: 다양한 독서를 통한 전가통의 앎 추구

- : 20세 때부터 '나'의 독서 편력이 시작됨.
- : 전가통(사물의 이치와 앎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추구함.

2문단: 반가통의 앎이 지배하는 사회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반가통의 앎이 진리로 통용되는 사회임. → 대충 알고, 모르는 것은 관습과 관행으로 지탱하는 사회임.

3문단: 전가통의 앎을 추구하는 즐거움

- : 전가통을 추구하며 청년 시절을 보냄.
- : 빈곤으로 인해 반가통의 독서를 하며 연명하기도 했으나, 생업

고 3

에서 풀려나온 뒤로 전가통을 추구하며 풍요로워짐.

4문단: 지속적 독서를 위해 책과 친해지는 방법

- : 책과 친해지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 ① 책에 몰입한다.
- ② 책을 읽는 즐거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 ③ 읽어야 할 책들을 꼼꼼하게 고르고 그 책들을 사들인다.
- ④ 읽은 책들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5문단: 인류 문명의 발전을 추동해 온 독서

- :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임.
- 삶에 대한 욕망과 책 읽기의 즐거움 때문에 책을 읽음.
- 나는 독서를 통해 인간으로 존재함.

1. <답> ①

<정답 풀이>

글쓴이는 '생업에서 풀려나온 뒤' 다시 활력을 찾고 풍요로워진 독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 독서에서 멀어지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은 글쓴이의 견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글쓴이는 책 읽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여 지속적 독서의 비결을 즐거움에서 찾고 있다.
- ③ 글쓴이는 희망 없는 내일과 궁핍이 의식을 옥죄는 가운데 독서를 통해 그 고통을 견뎌 냈음을 고백하고 있다.
- ④ 5문단에서 '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이라는 종의 생명 원리에 비추어 보자면 불가피한 욕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생업에서 풀려나온 뒤로 나의 독서 편력은 다시 활력을 찾'았다고 했다. 따라서 글쓴이에게 독서는 현실적인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독서를 '생명 원리에 비추어 보자면 불가피한 욕망'이라고 하여 독서가 그 자체로 인간에게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 <답> ②

<정답 풀이>

책들을 꼼꼼하게 고르고 사려면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책 읽기가 시작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책을 읽는 목적을 정한 후에 이에 맞는 책들을 골라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③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은 책의 목록에 따라 읽어 나가는 것,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책을 꼼꼼하게 고르는 과정을 생략한 것과 같다. 따라서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책 읽기가 시작된다.'라는 말과 무관하다.
- ④ 글쓴이는 읽은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억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독서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책을 읽으면서 얻은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과 무관하다.
- ⑤ 글쓴이는 읽은 책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려고 하면 책과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기억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책을 읽으라는 뜻은 아니다.

3. <답> ④

<정답 풀이>

보통 사람들에게 ㉠은 삶의 기초 소양이 되는 앎을 제공한다. 이는 적당히 아는 것, 사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앎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반가통의 사회에서는 지적으로 나태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② 반가통은 사물의 이치를 어렵풋하게 이해하는 것이며, 글쓴이가 전가통의 세계를 꿈꾼 것으로 보아 반가통은 전가통과 달리 글쓴이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 ③ 반가통의 사회는 대충 알고 모르는 것은 관습이나 관행으로 지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습이나 관행을 통한 앎은 책을 통하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다.
- ⑤ 반가통의 사회는 관습이나 관행으로 지탱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전가통은 사람이 깨치고 알아야 할 이치와 앎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4~7] 독서-인문

[지문 분석]

전통적으로 역사의 시대 구분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역사 시대를 '고대-중세-근대'의 세 시대로 구분하는 방법이다.(역사를 구분하는 보편적인 방법)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3분법은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자들의 시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기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새로운 시대'란 이전에 있었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는 의미였다.(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이 생각한 '새로운 시대'의 의미) [이들에 의하면 과거 그리스·로마 시대는 찬란한 인류 문화의 꽃이 만개한 황금기였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북유럽에서 게르만 족이라는 '야만족'이 내려와 암흑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이 고대를 황금시대로, 중세를 야만의 시대로 인식한 이유) 그래서 '르네상스'는 죽었던 고대 문화의 '빛'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역사의 시대 구분은 과거의 황금시대인 고대가 있고, 그것을 되살린 시대가 근대이며, 그 중간이 야만의 시대인 중세라는 것이다.(인문주의자들의 시대 구분)

1문단: 유럽에서 시작된 역사학의 3분법

이와 같은 3분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에서 형성된 이 '근대'란 개념이 단순히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라 '발전'의 뜻을 내포한 개념이며, 그것도 중세의 '암흑'으로부터 '빛'의 시대로 나아갔다는 극적인 발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야만의 시대인 중세로부터 빛의 시대인 근대로의 발전)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이제 새로운 빛이 다시 쬐였으니 이 빛의 인도를 받으며 인류의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는 다음 시기인 계몽주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역사가 발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이후 계몽주의 시대에 영향을 줌.) 그리고 이와 같은 3분법적인 시대 구분과 역사 인식은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의 근대 역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문단: 3분법의 '근대'가 내포하고 있는 '발전'의 의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역시 3분법을 바탕으로 세계사를 설명하려고 하였다.(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과의 공통점) 마르크스주의는 유럽사만이 아니라 세계사 전체를 하나의 보편 법칙으로 이해하려

고 하였는데, 이때 역사를 보편 법칙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특정 사회 공동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역사를 보편 법칙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과정(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바라본 인류의 역사)이라고 생각하고,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3분법의 역사 시대 구분인 고대, 중세, 근대를 각각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제 사회로 규정(고대, 중세, 근대를 생산 양식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는 고대 이전의 원시 공산 사회와 근대 자본제 사회 이후의 공산 사회를 추가하여 역사 발전의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

3문단: 3분법에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역사 발전의 5단계설에는 역사가 반드시 정해진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는 전제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전제를 소위 ‘단계설’이라고 한다. 단계설에서는 역사학의 시대 구분이란 단순히 역사 시대를 몇 토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역사 시대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며, 각 시대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생각하였다.(역사학의 시대 구분에 대한 단계설의 입장) 그리고 이러한 역사 발전의 단계를 바탕으로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역사의 시대 구분 방식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전 세계에 보편적인 시대 구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단계설의 입장)

4문단: 역사학의 단계설과 역사 시대 구분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단계설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근대 역사학은 유럽의 역사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보편적인 역사 발전 과정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로 귀결(유럽의 역사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보편적인 역사 발전 과정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되게 된다. 이로 인해 유럽과 다른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친 비서구권의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혹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회로 치부하기도 하였다.(자문화 중심주의로 인한 문제점) 결국 유럽의 근대 역사학은 유럽인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타자를 재단하는 잣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5문단: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단계설에 영향을 받은 유럽의 근대 역사학과 그 한계

[지문 정리]

- 주제: 3분법과 유럽의 근대 역사학
- 해제: 이 글은 유럽의 역사학에서 시작된 3분법이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3분법은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그들은 근대를 찬란했던 고대의 문화가 되살아나 중세의 암흑을 몰아내는 발전적 시기로 인식하였다. 인문주의자들은 역사를 발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계몽주의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 시대를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역사가 필연적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시대의 구분이 유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단계설에 영향을 받은 유럽의 근대 역사학은 세계의 역사를 유럽 중심주의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문단별 정리

1문단: 유럽에서 시작된 역사학의 3분법

: 보편적으로 ‘고대-중세-근대’로 시대를 구분하는데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됨.
 : 인문주의자들이 바라본 새로운 시대란 이전에 있었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는 의미임.

2문단: 3분법의 ‘근대’가 내포하고 있는 ‘발전’의 의미

: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라는 개념은 ‘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중세의 ‘암흑’으로부터 ‘빛’의 시대로 나아갔다는 극적인 발전의 의미
 → 역사가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음.
 : 이와 같은 사고가 후대 계몽주의에 영향을 줌.

3문단: 3분법에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 마르크스주의 역사학도 3분법을 바탕으로 세계사를 설명하고자 함.
 :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함.
 : 고대, 중세, 근대를 각각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제 사회로 규정함.
 : 역사 발전의 5단계설을 주장함.

4문단: 역사학의 단계설과 역사 시대 구분

: 단계설은 각 시대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생각함.
 : 단계설은 역사의 시대 구분 방식을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음.

5문단: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단계설에 영향을 받은 유럽의 근대 역사학과 그 한계

: 유럽의 역사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보편적인 역사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함. → 자문화 중심주의로 귀결됨. → 비서구권의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지 못함.

4. <답> ⑤

<정답 풀이>

3문단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노예제 사회를 고대, 봉건제 사회를 중세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은 단계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단계설은 역사 시대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로 구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가 노예제 사회와 봉건제 사회를 생산 양식의 측면에서 동질적인 시기로 인식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을 통해, 역사 시대를 ‘고대-중세-근대’로 구분하는 3분

고 3

법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자들의 시대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 인류의 역사가 발전할 것이라는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은 다음 시대인 계몽주의 시대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을 통해, 3분법과 단계설의 영향을 받은 유럽 역사학이 자문화 중심주의로 귀결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을 통해, 단계설은 역사 발전의 단계를 바탕으로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5. <답> ④

<정답 풀이>

<보기>에 따르면, 18세기 영·정조 시대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비록 일제의 침략으로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이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싹튼 18세기 영·정조 시대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중세가 개항 이후가 아니라 18세기 영·정조 시대 이전에 끝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이 역사 시대를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로 구분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생산 양식에 따라 역사 시대를 구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고려 시대는 봉건제 사회이고 개항 이후의 시기는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개항 이후의 시기를 보다 발전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 구분 방식은 유럽 역사학의 단계설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단계설에서 역사 시대의 구분은 각각의 시대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근대의 시기를 개항 이후로 보는 관점과 18세기 영·정조 시대로 보는 관점 모두, 근대 시기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답> ④

<정답 풀이>

1문단을 통해, 인문주의자들 역시 근대를 찬란했던 고대가 부활한 시대이자 중세에 비해 발전된 시대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을 통해, 인문주의자들은 황금시대였던 고대가 근대 시기에 되살아났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을 통해, 인문주의자들은 고대를 문화적 황금기로, 중세를 암흑기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문단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는 역사 발전의 단계설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중세를 고대보다 발전된 시기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역사 시대를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을 통해, 고대 문화가 다시 살아난 근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문주의자들은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

으며, 이러한 인식은 계몽주의 시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4문단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역사가관은 근대 이후에, 더욱 발전된 역사 시대인 공산 사회로 이행한다는 관점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답> ③

<정답 풀이>

㉠ ‘규정(規定)’은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는 모두 어휘의 사전적 의미가 정확하게 제시되었다.

[8~11] 독서-과학

[지문 분석]

잔잔한 호수에 배 한 척이 시속 10킬로미터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사례 제시) 배 안에는 영수가 있고 호수 밖 지상에는 영희가 서 있다. 이 두 사람이 공을 각자 자신의 머리 위로 던지면 공을 처음 위치에서 다시 받게 된다. 공이 떠 있는 동안 배가 움직인다고 해서 처음보다 뒤에 떨어지지 않는다.(배가 움직인다고 해도 처음 위치에 공이 떨어짐.) 두 사람에게 보이는 자연 현상은 똑같다. 이 현상을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갈릴레이의 기본 전제)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갈릴레이가 주장한 상대성 원리의 기본 전제이다.

1문단: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의 기본 전제

관성계란 뉴턴의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말한다. 관찰자가 정지, 혹은 등속 직선 운동 중에 있다면 관찰자는 관성계에 있다고 말한다.(관성계의 정의) 관성계 속에 있는 관찰자 영수와 영희를 생각해 보자. 영수와 영희는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즉 영희를 기준으로 보면 영수가 움직이는 것이고, 영수를 기준으로 보면 영희가 움직이는 것이다. 누가 진짜로 서 있고 또 누가 진짜로 움직이는지 결정할 기준이 없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면 왜 던져 올린 공이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는냐는 비판에 곤혹스러워했다.(지구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지구가 움직인 만큼 공이 뒤에 떨어져야 하므로) 하지만 관성계를 통해 그 비판도 깔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던져 올린 공과 영희가 수평 방향으로 모두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던져 올린 공이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

2문단: 지동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관성계

다시, 영수는 호수 위를 움직이는 배 위에 있고 영희는 호수 밖 지상에 있다. 이때 새가 호수 위를 영수의 배가 나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로 날아간다. 새가 영수가 탄 배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 영수와 영희가 동시에 그 새의 속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지만 둘의 결과는 다르다. 영희가 측정한 결과는 시속 40킬로미터이지만 영수가 측정한 결과는 자신의 속도 10킬로미터를 뺀 시속 30킬로미터이다.(영수와 새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영수와 영희가 동일한 새의 속도를 측정할 결과가 다르며, 이 두 결과 사이에는 규칙이 있다. 영수와 영희의 상대 속도인 시속 10킬로미터만큼 차이가 있어야 한다.(영수가 측정한 새의 속도: 시속 30km / 영희가 측정한 새의

속도 시속 40km)

3문단: 날아가는 새의 속도 관측 사례

이러한 규칙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자. 같은 장소에 있는 영희와 영수가 어떤 사건이 발생한 어느 지점(사건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한다. 영희는 사건 지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고, 영수는 사건 지점을 향해서 속도 v로 움직인다.(움직임 차이) 따라서 영희가 측정한 위치는 고정된 값이지만, 영수가 측정한 위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영수는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지금 쯤 것과 1초 후에 쯤 결과가 다를 것이다. 즉 영수와 영희가 같은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는 측정값이 X로 동일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수의 측정값은 줄어든다.(정지해 있는 영희와 달리 영수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임.) 영수가 v의 속도로 움직이므로 t초 후의 거리는 ‘속도×시간’, 즉 원래 값에서 vt만큼 줄어들게 된다. 영수가 측정한 결과를 X'이라고 한다면 영수와 영희의 측정 결과는 'X' = X - vt(갈릴레이 변환식)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갈릴레이의 변환식이라고 한다. 이제 사건이 1초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한다고 해 보자. 두 사람이 그 시간 간격을 쯤다면 모두 1초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영수가 쯤 시간을 t, 영희가 쯤 시간을 t'로 표현한다면 't = t'(영수와 영희가 쯤 시간이 같으므로)이 된다. 이와 같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관찰자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4문단: 사례를 활용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대한 설명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가정을 한다.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가정이다. 앞에서 영수와 영희가 새의 속력을 측정한 값은 달랐다. 영희와 영수의 운동 상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속력의 차이만큼 측정 결과도 달랐던 것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가정은 영수나 영희 모두 빛의 속력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측정한다는 것이다.(갈릴레이와의 차이점) 이처럼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갈릴레이의 가정에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아인슈타인의 가정을 더하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된다.(특수 상대성 이론의 성격) 즉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는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광속 불변의 법칙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이다.

5문단: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더 자세히 이해해 보자. 두 관찰자 영수와 영희가 있다. 영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차에 타고 있고, 영희는 기차 밖에 있다. 기차 안의 영수가 기차 밖의 영희와 마주 보는 순간, 기차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두 광선을 발사하면 영수가 보기에 빛이 동시에 기차 양 끝에 도달한다.(두 광선의 이동 거리가 다름.) 광선이 기차의 끝에 도착하는 순간 깃발이 올라가는 장치를 한다면 영수는 두 깃발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그런데 영희는 다르다. 상식적으로는 영희가 볼 때 두 광선이 동시에 양 끝에 닿으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이 왼쪽으로 가는 빛의 속력보다 빨라야 한다.(기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가는 광선은 기차 앞쪽이 자꾸 멀어지므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지만 왼쪽으로 가는 광선은 기차 뒤쪽이 다가오므로 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가정에 의해 오른쪽으로 가는 광선은 같은 속력으로 먼 거리를 가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왼쪽으로 가는 광선은 같은 속력으로 가까운 거리를 가므로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 따라서 영희는 두 깃발이 동시에 올라오

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기차의 뒤쪽 깃발이 먼저 올라오고 앞쪽 깃발이 나중에 올라온다. 영수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영희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동시성의 상대성) 이처럼 동시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변한다는 개념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6문단: 기차의 사례를 통한 부연

이때 영희가 측정한 위치와 시간을 X, t라 하고 영수가 측정한 위치와 시간을 X', t'이라 하면 두 관계는 다음과 같다.

$$X' = \frac{X - vt}{\sqrt{1 - \left(\frac{v}{c}\right)^2}} \quad t' = \frac{t - \frac{Xv}{c^2}}{\sqrt{1 - \left(\frac{v}{c}\right)^2}}$$

위의 수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와 시간을 관찰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 변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환을 로런츠 변환이라고 한다.(로런츠 변환의 개념) 이를 앞서 제시한 갈릴레이의 변환식과 비교해 보면 수식에 빛의 속력 c가 들어가 있다. 만일 여기서 c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훨씬 더 커서 무한대라고 하면 X', t' 모두 분모는 그냥 1이 되어 버린다. 또한 분자는 X의 경우 'X - vt'만, t의 경우 t만 남는다.(c가 무한대라고 하면 분모가 1이 되기 때문) 결국 'X' = X - vt'라는 갈릴레이의 변환식은 로런츠 변환식에서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관성 법칙: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지문 정리]

■ 주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 해제: 이 글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글이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의 기본 전제는 모든 관성계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갈릴레이는 시간이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다는 원리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끌어 낸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갈릴레이의 변환식은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로런츠 변환식으로 나오는 결과와 동일하다.

■ 문단별 정리

1문단: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의 상대성 원리의 기본 전제

: ‘배 안의 영수 / 호수 밖 지상의 영희’가 던진 공은 처음 위치로 떨어짐.

→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함.

2문단: 지동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관성계

: 관성계란 뉴턴의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말함.

: 지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던져 올린 공이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 → 던져 올린 공과 영희가 수평 방향으로

고 3

모두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임.

3문단: 날아가는 새의 속도 관측 사례

: 서 있는 영희가 측정한 새의 속도: 시속 40km
 : 시속 10km로 움직이는 영수가 측정한 새의 속도: 시속 30km
 → 영수가 새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임.

4문단: 사례를 활용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대한 설명

: 영희가 정지, 영수가 속도 v 로 움직이고 있을 때, t 초 후의 거리는 원래 값에서 ' vt '만큼 줄어들게 됨.
 : 영수가 측정한 결과를 x 라고 할 때, 영수와 영희가 측정한 결과를 ' $X=X-vt$ '로 정의할 수 있음.(갈릴레이의 변환식)
 :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이 관찰자에 관계없이 동일함.

5문단: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 모든 관성계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갈릴레이의 가정에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아인슈타인의 가정을 더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됨.

6문단: 기차의 사례를 통한 부연

: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차에 타고 있는 영수, 기차 밖에 있는 영희가 마주 보는 순간, 기차 정중앙에서 양측으로 동시에 두 광선을 발사
 : 영수는 두 깃발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
 : 영희는 두 깃발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음.
 → 기차가 이동하는 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광선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임.
 : 동시성이 관찰자에 따라 변함.(동시성의 상대성)

7문단: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관계

: 로런츠 변환에는 갈릴레이의 변환식에 빛의 속력 c 가 들어가 있음.
 : c 를 무한대라고 하면 X', t' 모두 분모가 1이 되어 버림.
 : 결국 X' 의 경우 ' $X-vt$ '만, t' 의 경우 t 만 남게 됨.
 : 결국 $X'-X-vt$ 라는 결과가 나옴.

8. <답> ③

<정답 풀이>

③ 6문단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하여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갈릴레이의 이론에 따라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갈릴레이는 관성계를 통해 지동설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5문단에서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력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가정을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에서 관찰자가 정지, 혹은 등속 직선 운동 중에 있다면 관찰자는 관성계에 있다고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2문단에서 던져 올린 공이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던

져 올린 공과 영희가 모두 수평 방향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9. <답> ④

<정답 풀이>

④ 움직이는 배 안에서 위로 던진 공이 뒤로 가지 않는 이유는 관찰자처럼 공도 배 안에 타서 같은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동설에 따라 지구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고 해도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체의 정지 상태는 곧 관찰자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0. <답> ⑤

<정답 풀이>

⑤ 우주선이 날고 있는 경우 영희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는 영수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에 비해 길어지기 때문에 같은 현상, 즉 빛이 거울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영희의 시간이 영수의 시간보다 빨리 간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우주선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영수와 영희의 상대 속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두 관찰자가 관찰한 빛의 이동 거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날고 있는 우주선에 탄 영수와 우주선에서 영수가 관찰한 빛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관성계 속에 있는 관찰자가 던져 올린 공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영수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는 정지했을 때 관찰하는 빛의 이동 거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③ 영희는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안의 빛을 보고 있다. 그런데 우주선이 날고 있다면 그 안의 빛도 이동하기 때문에 영희가 보는 빛의 이동 거리는 우주선이 정지했을 때에 비해 길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④ 갈릴레이는 모든 관성계에서의 시간은 동일하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11. <답> ④

<정답 풀이>

④ 이 글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력을 무한대로 가정하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된다는 것을 수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서 빛의 속력이 무한대라고 가정하면 ㉠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12. <답> ④

<정답 풀이>

④ 윗글에서는 갈릴레이, 아인슈타인, 로런츠의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기존 계산법의 한계로 인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윗글에는 갈릴레이, 아인슈타인, 로런츠 등 여러 이론가들의 이

- 론이 서로 엮여서 설명되어 있다.
- ② 윗글은 사례를 통해 갈릴레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로런츠 변환이 수식으로 제시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2문단을 통해 지구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위로 던져 올린 공이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13~17]
[지문 분석]

(가)
고령화 사회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발생하는 고령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령화 현상의 개념) 한 사회에서 54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숫자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게 되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우리나라의 현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은 14.3%이며, 2026년에는 20.5%로 예상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임.)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늦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1문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에게는 크게 네 가지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신체적 노화에 수반되는 각종 노인성 질환 발생에 따른 건강 보호의 어려움, 정신적 측면의 노화에 수반되는 고독과 소외 및 갈등, 사회적 지위나 역할 상실로부터 수반되는 무력감이나 여가 선용의 어려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에게 수반되는 네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복지국가 원리를 헌법에 수용한 것이다.(헌법에 따라 고령자들의 복지 향상을 추구해야 함.) 특히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 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노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 의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고령화 관련 국제 행동 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주택과 환경’의 권고 조항에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출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노인의 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과 적응 환경을 복구 및 개발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리모델링 및 개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우리나라가 고령자들

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근거)
2문단: 고령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나)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말하며, 실내외 공간뿐만 아니라 제품과 환경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다. ‘무장애 디자인’ 또는 ‘접근 가능한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용자의 연령·성별·신체적 조건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준형의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최대한 수용하는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하는 목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 및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1문단: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첫째, 사용의 유연성이다. 이 원칙은 광범위한 수준의 개인적 선호도 및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 동작에 대해 높은 정확성과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의 속도에 대한 적응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해야 한다. (사용의 유연성의 예)
2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①-사용의 유연성
둘째,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 능력, 집중력에 관계없이 사용함에 있어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을 해야 한다.(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함.) 따라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고, 사용자의 예상과 직관에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고,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고, 작업 수행 중 및 종결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②-단순성과 직관성
셋째, 정보의 지각성이다. 주변 조건이나 사용자의 감각 능력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중요한 정보는 중복적인 제시를 위해서 다른 정보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중요 정보의 가독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4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③-정보의 지각성
마지막으로, 오류에 대한 관용성이다. 위험한 행위나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구성 요소들을 배열해야 한다. 즉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열하고 위험한 구성 요소는 제거하거나 분리하거나 덮개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위험과 오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경계가 요구되는 작업에서 무의식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야 한다.]([]: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함.)
5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④-오류에 대한 관용성
유니버설 디자인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우가 많아 주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냉수와 온수를 별도로 조절하는 원형 수도꼭지 대신 일체형 디자인의 수도꼭지는 손쉽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그 사용 범위가 매우 확산되었다. 또한 큰 길거리의 횡단보도에서 남은 시간을 알려 주는 신호등 역시 유니버설 디자인의 예로

고 3

볼 수 있다.(유니버설 디자인이 활용된 사례)

6문단: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의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노인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 공학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그 외의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단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제품의 개발이나 연구에는 대부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문제점) 하지만 세계적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노인을 위한 제품이나 시설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연구와 제품의 개발은 경제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의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7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 촉구

(가)

■ 주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
 ■ 해제: 이 글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가 늦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고령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문단별 정리

1문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

: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14.3%, 2026년에는 20.5%로 예상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2문단: 고령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에게 수반되는 어려움
 ① 건강 보호의 어려움
 ② 고독과 소외 및 갈등
 ③ 무력감이나 여가 선용의 어려움
 ④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4항과 제5항, 고령화 관련 국제 행동 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등에 따라 고령자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나)

■ 주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 해제: 이 글은 최근 급속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우리가 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문단별 정리

1문단: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의미함.
 :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추구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최대한 수용하는 디자인을 목표로 함.

2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①-사용의 유연성

: 광범위한 수준의 개인적 선호도 및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3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②-단순성과 직관성

: 누구나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을 해야 함.

4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③-정보의 지각성

: 감각 능력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함.

5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④- 오류에 대한 관용성

: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함.

6문단: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일체형 디자인의 수도꼭지, 남은 시간을 알려 주는 신호등)

7문단: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 촉구

: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의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경제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복지의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13. <답> ④

<정답 풀이>

(가)는 처음에 고령화 사회의 의미를 밝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어서 고령자에게 수반되는 어려움을 말하고, 이에 우리나라의 헌법과 유엔 원칙에 명시된 항목을 언급하며,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고령화 사회로 인해 수반되는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순기능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자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③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고령화 사회의 뜻을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14. <답> ③

<정답 풀이>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의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늦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는 고령자의 정신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고령자가 더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④ 유니버설 디자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의 개발이나 연구에 대부분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⑤ (나)에 따르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용자의 연령·성별·신체적 조건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준형의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최대한 수용하는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15. <답> ⑤

<정답 풀이>

㉠과 ㉡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이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틀었다거나, 빨간불일 때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의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에 수정을 돕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류에 대한 관용성을 만족시키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일체형 수도꼭지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② 일체형 수도꼭지는 특별한 설명이 없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키고 있다.

③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소리를 사용한 청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면, 정보의 지각성을 더욱 높게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④ 파란불의 남은 시간을 알려 주는 시각 표시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키고 있다.

16. <답> ④

<정답 풀이>

(가)의 '특히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을 통해 노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한 복지 향상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은 14.3%이며, 2026

년에는 20.5%로 예상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늦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③ 우리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복지 국가 원리를 헌법에 수용한 것이다.

⑤ 「고령화 관련 국제 행동 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주택과 환경'의 권고 조항에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출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노인의 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과 적응 환경을 복구 및 개발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리모델링 및 개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17. <답> ②

<정답 풀이>

'명시(明示)하다'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게시하다'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③ '지시하다'는 '가리켜 보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④ '판시하다'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이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⑤ '표시하다'는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 보이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18~21] 문학-고전 산문

[지문 분석]

山水間(산수간)(정계와 떨어진 곳, 속세와 떨어진 곳.) 바회 아래 뉘집(초가집. 안분지족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늪들(속세 사람들)은 운논다 혼다마는, 어리고 향암(향암. 시골에 살아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일컬은 말)의 뜻의는 내 분(분)인가 흐노라.

▶ 1연: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지향

[현대어 해석]

산과 시내(자연) 속의 바위 아래에 움막을 지었더니, 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마음에는 이것이 분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노라.

보리밥 쫄면(안빈낙도의 소박함을 나타내는 소재)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곳 뭍(자연(대유법))의 슬크지 노니노라. ⇒ 자연친화적 태도

그 나쁜 녀나쁜 일(세속적인 일. 벼슬살이를 가리킴.)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설의법)

▶ 2연: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

[현대어 해석]

보리밥에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이나 물가에서 마음껏 놀고 있노라.
이렇게 한가로이 노닐고 있으니 그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일
이 있겠는가?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세속적 감정과 대비되는 공간)를 바라보
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흐랴?(설의법 : 반가움이 이보다
크지 않다. 임이 오는 것보다도 자연을 즐기는 기쁨이 더 크다는
뜻)

말씀도 우웁도 아녀도(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함) 뜯내 도
하 흐노라.

▶ 3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현대어 해석]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산이) 말하거나 웃음을 짓지도 않지만, 나는 그를 몹시도 좋아하
노라.

누고서 **三公(삼공)**(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벼슬을 뜻하는
말.)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만 대의 수레. 황제의 지위를 뜻
함.)이 이만흐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중국의 대표적 은자(隱者)
| **낙뫼더라.**(영탄법)

아마도 **림천 한흥(林泉閑興)**(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흥취. 자연친
화적 정취를 직접 드러낸 말)을 비길 곳이 **업세라.**(영탄법)

▶ 4연: 자연을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

[현대어 해석]

누군가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만승
천자인들 이만큼 좋겠는가?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도다.
아마도 자연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비길 데가 없으리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자신의 성품이 게으르다는 것은 세속을 벗어
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뜻) 하늘히 아르실사.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맞더(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다툼이 잦은 세속과 대조되는 자
연에서의 삶)을 디회라 흐시도다.

▶ 5연: 세속과 멀어져 자연에서 지내는 만족감

[현대어 해석]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서,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도 맡기지 않으시고,
다만 다툼 상대가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도다.

강산(江山)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자연에서 한가
롭게 사는 삶이 자신의 분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여김)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자연에서의 삶이 임금의
덕분임을 인식함)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히울 일이 업세라**(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음)

▶ 6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현대어 해석]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나의 분수로 (이렇게 편안히) 누워 있겠는가.
이 모두가 임금의 은혜인 것을 이제 더욱 알겠도다.
이 은혜를 아무리 갚으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구나

- 윤선도, 「만흥(漫興)」

■ 핵심 정리

- 갈래: 평시조, 연시조(전 6수)
- 성격: 강호한정가, 자연친화적, 은일적
-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 특징
 - ①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 ②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의 자세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자연
관이 드러남
 - ③ 한문 투의 표현이 거의 없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음
 - ④ 자연과 속세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어 사용
 - ⑤ 안분지족에 대한 소망과 연군지정의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 ⑥ 인간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통해 현실 도피적 태도를 드러냄

■ 각 수의 주제와 주요 소재

	주제	주요 소재
1수	안분지족의 삶	뫼집
2수	안빈낙도의 삶	보리밥, 풋나물
3수	자연에 벗 삼는 한정(閑情)	뫼
4수	강호한정의 삶	소부, 허유, 임천한흥
5수	자연귀의의 삶	강산
6수	성인에 대한 감사	임군 은혜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총 6수의 연시조로,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
박하고도 한가로운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과 흥취를 느끼고 있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18. <답> ①

<정답 풀이>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누고서 삼공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이 이만흐랴’와 같은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자연에
서 지내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음성 상징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③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나 다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뫼’를 의인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지닌 여러 속성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19. <답> ④

<정답 풀이>

화자는 ‘잔 들고 혼자 안자’ ‘뫼 뫼’를 바라보면서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랴’라고 하며 자연 속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님’을 언급한 것은 만족감을 강조하고자한 것이지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고자 한 것은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웃을지라도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보리밥 푼늬뭉’은 소박한 음식이므로 ‘보리밥 푼늬뭉’을 알맞게 먹고 ‘뛰집’에 거처하는 것은 화자의 검소한 생활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바햇 곳 뭉ᄃ’는 자연 속의 공간으로, 이곳에서 실컷 노니는 것은 ‘산슈 간’으로 생활의 거처를 옮긴 후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화자의 한가로운 일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가 약았다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한 소부와 허유가 영리한 것이었다고 느낄 정도로 화자가 ‘산슈 간’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답> ②

<정답 풀이>

㉠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 ‘뛰집’을 짓고 사는 것을 남들이 웃는다고 해도 어리석은 자신의 분수나 처지에는 맞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삶은 자신의분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삶이 ‘님군 은혜’ 덕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에서 화자는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맞지만, 자연에서의 삶을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에서 화자가 다른 사람들도 자연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을 자신의 인격 수양과 관련짓고 있지 않다.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⑤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임금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신의 현명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21. <답> ②

<정답 풀이>

②에서 ‘그 나쁜 녀나쁜 일’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일이 아닌 다른 일, 즉 세속에서의 일을 가리킨다. 화자가 ‘그 나쁜 녀나쁜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지향 의식을 품게 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세속적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① <제1수>에서 ‘그 모른 늬들’은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로,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화자의 선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제4수>의 ‘만승이 이만흐랴’에서 ‘만승’은 부귀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자연에서 지내는 삶이 부귀보다 낫다는 것이므로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제5수>에서 ‘드토리 업슨 강산’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강산’에는 다통과 갈등이 없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화자가 정치적 갈등으로 번잡한 현실에 대한 반감과 자연 지향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제6수>에서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게 되어 이를 갚고자 하나 ‘히올 일’이 없다고 토로하는 것은 자연에서의 삶을 살도록 해 준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지만 임금을 위해 ‘히올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27] 문학-갈래복합(희곡, 현대시)

[지문 분석]

(가)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의 매개체)**에서 너는
문득 **낮선 얼굴(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닌 존재)**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일상에 안주하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소시민적인 모습)
낮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으나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근대화된 당시의 현실)
**고개를 끄덕여다오(표면적으로는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우민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반어적 표현임.)**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반어적 표현)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진실을 덮는 소리)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반어적 표
현)**
옛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반어적 표현을 통해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냄.)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들)

이야기해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나’ 역시 비판의 대상임.)

- 김광균, 「상행(上行)」 -

(나)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책임감이 강한 자양)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를 운반하고 다니니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운전수를 통해 현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냄.)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익명화된 등장인물들-현대 사회의 소통 부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뀌어진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뀌진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 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뭐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현대 사회의 모습)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중략>

자양: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 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창고를 떠나고자 하지만 자양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함.)

자양: 그래.....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령: (늦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이**(자양에 대한 애정이 담긴 별명),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기임에 대한 애정이 담긴 소재)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령: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령: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걸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걸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북어 대가리 — ?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미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트럭을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미스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임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생명력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제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하지만 네 생각을 말해 봐. 만약에.....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대답이 없니?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기임이 떠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

양) 아냐, 내 물음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리 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핸들 카에 실린 상자들을 서류와 대조하며 제자리에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나는 의붓어미다! 정확하게 쌓아라! 틀리면 야단칠 테다!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다시 창고 속 삶으로 돌아오는 자양)

(자양,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이강백, 「북어 대가리」

[지문 정리]

(가) 상행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시, 자유시
- 성격: 반어적, 현실 비판적
- 주제: 근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에 침묵하는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
- 특징
 - ① 냉소적이고 반어적인 어조를 활용함.
 - ② 사물을 의인화하여 현대 사회의 불안한 풍경을 담아냄.
 - ③ 근대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부정적인 근대화의 측면에 대해 침묵하는 소시민적 태도를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너’는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 열차를 타고 있다. 창밖에 보이는 ‘원색의 지붕’, ‘TV 안테나’, ‘고속도로’ 등은 근대화가 진행되는 사회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근대화의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다. 화자는 ‘너’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대화로 인한 사회 모순과 정신적 타락을 비판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다.

(나)

■ 핵심 정리

- 갈래: 희곡
- 성격: 풍자적, 비유적
- 주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비판
- 특징
 - 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자양’, ‘기임’ 등으로 익명화되어 있음.
 - ②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해 주제를 드러냄.
 - ③ ‘창고’라는 공간을 통해 현대 사회의 모습을 풍자함.

■ 이해와 감상

이 희곡은 ‘자양’과 ‘기임’이라는 두 창고지기를 통해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창고’는 기계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양’과 ‘기임’의 삶의 터전으로, 세상 밖과 격리된 공간이다. 이곳에서 ‘자양’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일이 그릇된 창고 밖의 세상에 도움을 주

는 것이 아닐까 하며 의심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까봐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기임'이 창고를 떠나자 '자양'은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괴로워하는 자신을 말라비틀어진 '복어 대가리' 같다고 여기면서도 다시 창고지기 일에 매진하겠다고 결심한다. 작가는 '자양'을 통해 산업 사회에서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현대인들이 세상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자각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복어 대가리'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22. <답> ③

<정답 풀이>

(가)는 '-다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기차 안과 밖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작품의 시작과 끝이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는 화자가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 방식이 쓰이고 있다.

④ (가)에는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 대상을 의인화하는 기법은 쓰이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 화자는 시종일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3. <답> ④

<정답 풀이>

아!'라는 감탄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순한 반응으로,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드러나는 '보다 긴 말'과는 대비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낮익은 얼굴들'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너'가 회피하려던 삶의 모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

③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하는 '즐거운 여행'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벼운 삶을 의미한다.

⑤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관심사를 의미한다.

24. <답> ②

<정답 풀이>

다령은 자양에게 창고 속 물건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다령이 창고에 남아 있을 자양을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운전수는 자양의 편지가 원래 주인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 편지를 찢었다.

③ 운전수는 자양이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해 온 점을 인정했지만, 배짱은 부족하다고 판단 했다.

④ 운전수는 기임이 자신의 딸인 다령과 함께 창고를 떠날 때 차를 태워 주었다.

⑤ 자양은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써 엉뚱하게 바뀐 상자를 주인에게 되찾아 주려 하였다.

25. <답> ③

<정답 풀이>

기임은 그동안 자신의 물건까지 챙겨 주었던 자양과 헤어지는 것을 서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화난 표정을 짓기보다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어야 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자양은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

② ㉡에서 운전수는 다령이 갑자기 말을 번복하자 어리둥절해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다.

④ ㉢에서 자양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기임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다.

⑤ ㉣에서 자양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잠시나마 회의했던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있다.

26. <답> ⑤

<정답 풀이>

(가)에서 '흔들리는 차창'은 '너'의 모습이 비치는 곳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나)에서 '복어 대가리'는 '자양'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너'와 '자양'의 처지를 돌아보게는 하지만, 이를 극복하겠다는 인물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지는 않다.

② ㉢과 ㉣을 통해 '너'와 '자양'의 불행한 처지가 나타날 뿐, ㉠과 ㉡이 그런 처지의 '너'와 '자양'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③ ㉠과 ㉡은 모두 현재 '너'와 '자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향하는 세상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다.

④ ㉢을 통해 화자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너'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은 현재 삶의 활력을 상실한 인물의 삶을 상징한다.

27. <답> ④

<정답 풀이>

(나)에서 '운전수'가 아내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서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자양'을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경직된 사고를 지닌 현대인은 '서류'를 중시하지 않는 '운전수'가 아니라 '서류'를 절대시 하는 '자양'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소리는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가)에서 '듣기 힘든 소리', '긴 말'은 산업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인데 이 말에 '귀 기 울이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은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는 소시민적 삶을 비판하기 위해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나)에서 상자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상자를 접수하고 분배하는데, 이는 분업화된 사회에서 기계처럼 취급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⑤ (나)에서 창고는 분업화, 획일화된 현대 사회를 상징한다. '자양'이 계속 창고에 남아 자신의 일에 충실하겠다고 한 것은 그가 문제점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28-31] 문학-현대 소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낙동강 주변 참모래 언덕이라는 뜻의 마삿등 마을에는 사람들이 판자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공공 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 중 **황거칠 씨**(작품의 중심 인물로 희생적이고 의지적인 인물)는 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산에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 쓰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어느 날 **호동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산 수도의 땅이 자신의 형인 호동수가 국가로부터 매입한 땅이라며 산 수도의 철거를 통보한다.**(부정적인 인물인 ‘호동팔’, ‘호동수’ 형제로 인해 수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마삿등 사람들)

황거칠 씨는 그 길로 일제 때부터 그 산을 보아 왔다는 박 노인이란 연고자를 찾아갔다.

“그래요?”

박이관 그 순적백성은 황거칠 씨의 말을 듣더니 비로소 미안스런 표정을 하며,

“호동팔이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며 줄라 쌓길래 도장을 안 찍어 조웃능기요. 며 연고권 서류라카등가요. 내싸 며 그런 거 불하받을 생각도 힘도 없고 해서…….”(방언을 활용하여 내용을 생생하게 드러냄.)

황거칠 씨는 ‘아뻘싸!’ 싶었다. 손이 늦었었다. 그러나 손이 안 늦었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걸 불하받을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죽일 놈들!”(호동팔, 호동수 형제에 대한 분노)

해 보았잖아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황거칠 씨는 대범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산에서 솟는다고 산 임자의 물은 아닐 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속으로 다짐했던 것이다.**(산 수도를 지키겠다는 황거칠 씨의 의지)

[그날 밤 실근이란 통장이 알아보고 온 얘기로서는 S산의 일부인 ‘마삿등’ 뒤의 적산 임야 일대가, 얼마 전 동팔의 형 동수의 명의로 완전 불하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다.](**[] : 법적으로 수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 돼서 법원으로부터 출두 통지서가 나왔다. 호동수가 수도 시설을 철거시켜 달라는 **소송(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물론 황거칠 씨는 이의를 내걸고 반대했다. 그러나 끝다 끝다 결국 힘 부족 세 부족으로 재판에 지고, 집달리가 현장에 나타났다. 강제 철거다. 미리 시끄러울 것을 짐작했던지 경찰관까지 현장에 동원되었다. ‘마삿등’에서도 그날은 일을 나가지 않은 사내 꼭지들은 거의 다 현장인 샘터에 나와 있었다. 아낙네들도 더러 나왔었다. **군중 심리의 탓이랄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일촉즉발의 험악한 공기로 되어 갔다.(긴장감이 조성됨.)

황거칠 씨는 내쳐 풀이 죽어 있었다.(호동수 형제와의 재판에서 패해 강제 철거를 당하는 상황이므로) **정상 작량(情狀酌量)도 법을 권사람의 자유다. 게다가 집달리란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도 인정도 없게 마련이다.**(법의 부조리와 권력의 횡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마삿등’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다섯 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팽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

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 하노?”
(마을 사람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저항)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팽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그것을 계기로 부락민들도 와 몰려갔다. **집달리 일행과의 사이에 별싸움이 벌어졌다.**(마을 사람들과 집달리 일행이 물리적으로 충돌함.) 경찰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결국 동팔이와 인부 한 사람이 이쪽 청년들의 편치에 코피가 터졌다. 경찰은 발포를 —다행히 공포였지만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 집행도 일시 중단되었다.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공무 집행 방해에다, 산주의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나오질 못했다. **쌍말로 썩어 갔다.**(민중들을 억압하는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희생적 태도)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되지 않았다.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찰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석방의 조건으로서, 다시는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 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삿등’은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마을 사람들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됨.)

일행이 구류간에서 풀려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팔이가 ‘마삿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었다.**(수도 시설을 독점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려 함.)

‘죽일 놈!’

하고,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에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냉소적, 반어적 태도) —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물론 헐값으로), 정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 꿈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가거라, 이 개 같은 놈아! 밥을 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 다녀?”

황거칠 씨는 벼락같은 소릴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음 내버렸지, 동팔이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 경영 따위 쓸개 빠진 짓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왔던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쳐 주먹을 떨어 댔다.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던가? 뻔뻔스런 놈 같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제안을 거절당한 호동팔이 배수 시설을 따로 만들기 시작함.)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늘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동팔이와 특별한 관계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일을 맡아 있다든가, 인척 관계인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호동팔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드디어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황거칠이 생각한 대안)

‘어디 제 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 김정환, 「산거족」 -

[지문 정리]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비판적, 사실적

■ 주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소외당한 사람들의 저항

■ 특징

-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지방색을 드러냄.
- ② 비속어를 통해 사실성과 현장감을 부여함.
- ③ 소외된 하층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사실주의적 성격을 드러냄.
- ④ 대비적인 인물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함.
- 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서사 전개의 속도를 조절함.

▣ 이해와 감상

이 글은 판자촌인 ‘마삿등’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인 ‘황거칠’ 씨가 마을의 식수원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민중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그러한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전체 줄거리

마삿등 판자촌에 사는 황거칠 씨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의 물을 끌어다가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때 호동팔이 나타나 물을 쓰는 산이 자신의 형의 산이므로 수도를 철거해 줄 것을 통보한다. 황거칠 씨가 이에 불복하자 호동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진 황거칠은 결국 물 사용권을 빼앗긴다. 이어 강제 철거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황거칠 씨와 몇몇 청년은 경찰에 연행되고 만다.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온 황거칠 씨는 국유지 산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수도를 연결하지만 또 다시 국유지를 불하받았다는 산 임자가 나타나면서 마삿등 사람들은 수도 시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황거칠 씨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사태에 맞서는데, 재판 도중 총선이 겹치면서 재판이 갑자기 중단되고 황거칠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하 취소 투쟁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

28. <답> ①

<정답 풀이>

이 작품은 ‘황거칠’이라는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황거칠’이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재의 상황이 제시되어 ‘황거칠’이라는 인물의 처지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과거의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황거칠’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작품은 ‘마삿등’ 마을이 배경이 되고 있지만, 다양한 시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29. <답> ⑤

<정답 풀이>

㉠은 호동팔이 배수 시설을 독차지하기 위한 계약으로, 마을 주민들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은 순진한 ‘박 노인’을 이용해 ‘호동팔’이 땅을 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 ② ㉢은 ‘호동팔’의 계약을 미리 알고 산 수도의 땅을 불하받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
- ③ ㉣은 산 수도를 지키고자 하는 ‘황거칠’의 강한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④ ㉤은 주민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맡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황거칠’의 희생정신을 나타낸다.

30. <답> ④

<정답 풀이>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아닌 호동팔 측 사람들에게 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답 풀이>

- ① ‘손이 안 늦었더라도 산 수도의 땅을 불하받을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는 것으로 보아 황거칠은 산 수도의 땅을 살 여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마을 사람들 중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두꺼비집’ 같은 데서는 어쩔 수 없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③ 황거칠은 다시는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 ⑤ 황거칠의 ‘어디 제 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통해 다른 곳에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마음을 먹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1. <답> ④

<정답 풀이>

황거칠이 담당 경찰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한 것은 가족들의 걱정으로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지 자신의 요구 조건이 일부 수용되었기 때문에 권력자와 타협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수도 시설을 철거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황거칠을 비롯한 ‘마삿등’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부당한 횡포로 볼 수 있다.
- ②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팽이에 무참히 헐리’는 것은 마삿등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법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한 인부의 팽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치는 것은 황거칠로 대표되는 ‘마삿등’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법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애써 만든 산 수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호동 팔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산 수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의해 서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34]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백공(숙영 남자의 시아버님)은 비복을 시켜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질을 하라고 호령하였다. [사정을 두지 않고 마구 치는 비복들의 매 밑에서 숙영 남자의 **백옥 같은 귀밑(직유법)**에는 피멍울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눈같이 흰 살결(직유법)**은 핏물이 배어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남자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고통을 참고 이를 악물며 말하였다. **[([] : 비복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숙영 남자)**

[“지난번에 낭군께서 길을 떠난 날 밤과 그 이튿날 밤, 두 번을 삼십 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하고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습기에 제가 한사코 타일러서 다시 돌려보낸 일은 있었사옵습니다. 그때는 어린 제 소견으로 시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 봐 겁을 내어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하오나 조물주가 그것을 밋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하여 이런 썰지 못할 누명을 입은 듯하옵습니다.(숙영 남자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제 와서 늦은 변명같이 되었사오나, 밝은 하늘이 날날이 살피 아시오니 아버님께옵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시어 저의 정상을 다시 헤아려 주시옵소서.” **[([] :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숙영 남자)**

그러나 한 번 눈과 귀로 확인한 의심인지라, 백공은 점점 더 노하여 비복에게 더욱 심한 매질을 가하도록 호령하였다. 남자는 참을 수 없는 매 밑에서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다.

“아아, 푸른 하늘은 무고한 이내 몸을 굶어살피소서. 오월에 서리가 내리고 십 년을 원망해야 할 이 원한을 어느 누가 풀어 주오리이까?”(하늘을 향해 억울함을 토로함.)

하고는 엎어져서 혼절하고 말았다. 이 참상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울면서 영감에게 말하였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 하였사오니, 영감께서 사실도 잘 모르시면서 티 없이 굳은 정절을 가진 며느리를 억울하게 음행(淫行)의 죄를 씌워 다스리시니, 만약 며느리의 무죄함이 밝혀졌을 때 무슨 면목으로 현부를 대하려 하시나이까?”(숙영 남자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하면서, 뜰 아래로 뛰어 내려가 남자를 부여잡고 목을 놓아 울었다.

“너의 백옥같이 티 없는 굳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이런 변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니 그 아니 원통하겠느냐?”

남자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옛말에도 다른 소문과는 달리 음행의 소문을 씻기는 어렵다 하였사온 즉(옛말을 인용함.), 동해 바닷물을 모두 기울인다 한들 이 누명을 씻으리까? 이런 썰지 못할 누명을 쓰고 어찌 구차히 살기를 바라오리까?(누명을 쓰고 살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숙영 남자)”

시어머니는 남자를 가엾게 여기고 갖은 말로 무수히 위로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듣지 않고 바른 손에 옥비녀를 빼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절을 한 다음 빌었다.

“밝고 밝은 저 황천(黃泉)은 부디 굶어살피소서. 제가 만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이 있거든 이 옥비녀가 제 가슴팍에 꽂히고, 이것이 억울한 누명이거든 이 옥비녀가 저 섬돌에 박히도록 영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는, 옥비녀를 허공에 높이 던지고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잠시 후에 옥비녀가 떨어지면서 섬돌에 깊이 박히었다.(숙영 남자가 억울한 상황임이 드러남.)

(중략)

그렇게 행차하여 남으로 사흘을 간 후에 백선군이 잠시 피로를 풀고자 주점에 들러 쉬고 있는데, 문득 졸음이 와서 눈을 감으니 비몽사몽간이라. 숙영 남자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선군의 옆에 앉더니 절통하게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었다.

“낭군께옵서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오시니 기쁘기 그지없사오나, **저는 이미 박명하여 이 세상을 버리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었나이다.(억울하게 죽어버린 숙영 남자)** 일전에 낭군님의 편지 사연을 들으니, 낭군께서 저에 대한 사랑은 간절하시오나, 이것 또한 저의 연분이 적박하여 벌써 이 세상을 하직하였으니, 구천의 혼백이라도 한스렵기 그지없사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원통한 사연을 낭군께옵서 풀어 주시어 편히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썼기로 아직까지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구천을 방황하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낭군께서는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시시비비를 가려 누명을 벗겨 주시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되고자 하나이다.(자신의 남편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함.)**

하고 나서는 남자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선군이 크게 놀라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축축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선군은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연유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숙영 남자의 죽음을 모르고 있음.)**

다음 날부터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인마를 재촉하여 서둘렀다. 며칠만에 풍산 마을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으나, 남자 생각에 골몰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하인이 와서 이르기를, “대상공(大相公)께서 오셨나이다.” 하였다.

아들을 만난 백공은 망설이다가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고 거짓으로 알리고는 선군이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연을 물으면서 억지로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선군을 향해 은근한 말로 권유하였다.

“장부가 뜻을 얻으면 아내를 얻는 것이 고금의 상례로 되어 있다 하니 너도 이제 그렇게 함이 좋을 듯하구나. 듣자 하니 이 마을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 하므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혼례 일자리를 잡아 놓았으니, 이곳에 온 김에 내일 당장 육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숙영 남자의 죽음을 숨기고 다른 여인과 혼인을 시키고자 함.)

선군은 숙영 남자가 꿈에 나타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일을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막상 부친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보니 이상한 마음이 들어 생각하되, ‘부친께서 이렇듯 나에게 재취를 권유하시는 것을 보니, 숙영 남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임 남자와 결혼하게 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하고는 당장 부친께 말씀드렸다.

“아버님 말씀은 지당하시오나, 소자의 마음은 급하지 않사오니 나중에 청혼하여도 늦지 않을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니 그 말씀은 지금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숙영 남자를 향한 변함없는 태도)

고 3

아들의 성질을 잘 아는 백공은 더 이상 조르지 못하고 근심 속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첫닭이 울고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선군은 행졸(行卒)을 재촉하여 곧바로 안동으로 향하였다.

(중략)

선군은 냇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아내의 빈소로 가서 크게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집안의 모든 남녀 노복들을 한 자리에 묶어서 마당에 꿰어 앉혔다. 그 가운데 매월이도 끼어 있었다. 선군이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빈소로 들어가 이불을 벗기고 보니 마치 살아 있는 듯 조금도 살이 썩지 않고 있었다.

[선군은 울음을 삼키면서, '이제 내가 왔으니 남자는 부디 안심하라. 가슴에 박힌 칼이 빠진다면 그 칼로 원수를 갚아 남자의 원혼을 달래리라.'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칼을 잡고 당기니 가볍게 쭉 빠지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남자의 가슴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와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매월이로 인해 숙영 남자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음.)

하고 세 번을 울고는 날아갔다. 조금 후에 또 다른 파랑새가 날아와서, [[]: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하고는 또 세 번을 울고는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선군은 매월의 질투 소행인 줄을 알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형틀을 갖추고 모든 노복들을 차례로 문초하고 매질하였다. 하지만 죄가 없고 또한 비밀도 모르는 노복들이 어찌 진실을 말할 수 있으랴? (서술자의 개입) 마지막으로 매월을 끌어내다가 문초하였으나 간악한 매월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죽을 때까지 사정 두지 말고 매우 처라!”

추상같은 선군의 호령에 좌우 사령들이 매월을 향해 사정없이 매질을 가하였다. 매가 백 장(杖)에 이르자, 무쇠 같은 몸인들 어찌 터지지 않고 배기랴?(서술자의 개입) 그토록 모진 매월도 절반은 냇이 나가서 개개승복(個個承服)*하면서 빌었다. 그리고 사건 전말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숙영 남자가 이 댁 본실로 들어온 후로 선군이 자기를 멀리하고 남자만 총애하기에, 질투가 생겨 그 원통한 마음을 풀려고 그와 같은 간계를 꾸며 남자에게 누명을 씌웠노라고 하였다.(사건의 전말이 밝혀짐.) 선군은 즉시 공모한 불량배 둘이를 잡아다가 문초를 하였다. 그런 결과 매월의 꼬임으로 돈에 팔려 숙영 남자의 방에 드나드는 외간 남자처럼 꾸며서 백공의 의심을 사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에잇,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아!”

선군은 노기가 충천하여 칼을 들고 뜰로 내려와서 매월의 목을 한칼에 베어 버렸다.(선군이 숙영 남자의 원한을 풀어 줌.)

- 작자 미상, 「숙영남자전」

* 개개승복: 지은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자백함.

[지문 정리]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소설, 애정 소설
- 성격: 비현실적, 교훈적
- 주제: 현실을 초월한 절대적인 남녀 간의 사랑

특징

- ① 봉건적 가치관과 애정 추구 사이의 갈등이 나타남.
- ② 인물의 행위나 외형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묘사함.
- ③ 비현실적 사건이 중심 소재를 이루고 있음.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양반가의 가정을 배경으로 숙영과 선군을 둘러싼 비현실적 사건을 중심 소재로 하여 이루어진 애정담이다. 전체적으로 ‘인간과 선녀의 만남 - 숙영의 억울한 누명과 죽음으로 인한 시련과 이별 - 옥황상제에 의한 숙영의 재생 및 재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효(孝)’를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부모와 ‘애정’을 중시하는 자식 간의 갈등이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인데, 남녀 간의 사랑이 더 중시됨으로써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조선 후기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전체 줄거리

조선 세종 때, 백상군과 부인 정 씨가 명산대찰에서 빌어 낳은 외아들 선군이 장성하자 적강 선녀 숙영은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과의 천상 인연을 알려 준다. 두 사람은 하늘이 정한 기한인 3년을 어기고 혼인하여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지낸다. 선군은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 과거를 보라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다가 아내의 권유로 과거 길을 떠나지만 아내가 그리워 가던 길을 되돌아와 아내를 보고 간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백상군은 선군을 외간 남자로 오인하고 시비 매월은 숙영을 음해하여 누명을 씌운다. 숙영은 억울한 모함에 자결하고 백상군은 선군과 임 남자의 혼인을 추진하지만, 선군이 꿈을 통해 숙영의 소식을 알고 매월을 벌한다. 숙영은 옥황상제의 은덕으로 재생하여 선군과의 연분을 다시 잇고 임 남자와 세 사람은 여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다가 하늘로 승천한다.

32. <답> ③

<정답 풀이>

선군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노복들을 차례로 문초하고 매질할 때 ‘하지만 죄가 없고 또한 비밀도 모르는 노복들이 어찌 진실을 말할 수 있으랴?’나 ‘매가 백 장(杖)에 이르자, 무쇠 같은 몸인들 어찌 터지지 않고 배기랴?’와 같은 부분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작중 인물이나 사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는 숙영 남자의 일부 외양 묘사(백옥 같은 귀밑, 눈같이 흰 살결)를 제외하고 다른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며, 인물의 성격은 인물의 말을 통해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숙영의 시어머니가 “너의 백옥같이 티 없는 굳은 절개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숙영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며, 백공이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임 남자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이 작품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서사가 전개되는 순차적 구성의 작품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면서 사건의 개연성이 확보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선군이 ‘풍산 마을’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다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배경이 제시되긴 하지만, 별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 않을

뿐더러 이곳을 통해 ‘현실을 초월한 절대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작품의 주제가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뽑히지 않던 칼이 선군에 의해 빠지면서 숙영의 가슴에서 파랑새가 나오고, 그 파랑새가 나오며 범인을 알려 주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인물이 처한 비극적 운명이 해소되는 계기로,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풍자 의식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33. <답> ⑤

<정답 풀이>

백공이 임 진사의 딸과 선군을 결혼시키려는 것은 선군이 숙영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기 전에 아내를 얻어 정을 붙이게 하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 진사 집안과의 결연을 통해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을 이루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백공은 선군이 숙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고 거짓을 알리며 장원 급제한 사연과 임 낭자와의 혼사 이야기를 꺼낸다. 이는 선군이 숙영이 아닌 다른 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화제를 돌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숙영 남자가 꿈에 나타나 이야기한 것을 처음에 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부친인 백공이 임 진사의 딸과 혼례 일자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부친께서 이렇듯 나에게 ~ 숙영 남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선군의 어머니가 숙영에게 “너의 백옥같이 티없는 ~ 그 아니 원통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숙영의 절개에 대한 믿음과 그녀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선군의 모진 매질에 매월이 털어놓은 사건 전말을 보면 ‘선군이 자기를 멀리하고 남자만 총애하기에, ~ 남자에게 누명을 씌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숙영에 대한 질투와 자신을 멀리하는 선군에 대한 원망의 감정에서 숙영을 모함하였고, 그로 인해 백공 집안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적절하다.

34. <답> ③

<정답 풀이>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군이 잠에 들어 꿈에 숙영이 나타나 자신이 죽었음을 알리고,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잠’은 선군이 죽은 숙영의 혼이라는 초월적 존재와 만나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숙영은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조력자로 볼 수 없으며, 꿈을 통해 선군이 숙영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 것이지 본인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바뀐 것은 아니다.

② 죽은 숙영이 자신의 억울함을 선군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선군이 숙영의 원한을 풀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에게 닥칠 부정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숙영이 제 죽음과 관련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현재와 대비되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꿈에 나타난 숙영이 자신의 억울함과 분한 마음을 호소하며, 선군에게 자신의 누명을 벗겨 주길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현실에 대한 인물의 체념적 정서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④	37	⑤	38	④	39	⑤
40	③	41	①	42	④	43	④	44	③
45	①	수고하셨습니다.							

[35~37] 화법

[지문 분석]

사회자: []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관은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동아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학생회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인 심사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추천 방식을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천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 토론 배경을 제시함.)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토론 순서를 안내함.)**

찬성 1: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평가자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심사 방식의 문제점)** 반면에 추천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천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추천 방식의 장점)**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추천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찬성 측 주장을 반박함.)** 준비가 덜된 동아리가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찬성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므로,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방식은 모든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심사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함.)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함.) 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반대 1: 그 문제는 평가 기준의 일부를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갈래: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 성격: 논리적
- 주제: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천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토론
- 특징
 - ① 사회자가 토론의 배경을 안내하고, 토론 순서를 안내함.
 - ② ‘입론-반대 신문’으로 진행됨.

35. <답> ④

<정답 풀이>

‘반대 1’은 입론에서 기존의 심사 방식이 평가 기준의 타당성이 높다는 점, 계획 제출 기회가 공평하다는 점, 준비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하고 새로운 방식인 추천 방식으로 선정 방식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해당 동아리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식인 추천 방식으로 선정 방식이 바뀔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였으며, 기존의 방식인 심사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는 주장하지 않았다.
-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 ⑤ ‘반대 1’은 입론에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반대하여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열거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6. <답> ④

<정답 풀이>

[B]에서 ‘찬성 1’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와 같이 ‘반대 1’이 앞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였고, 평가 기준의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반대 2’는 찬성 측의 주장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 대신 다른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 ② [A]에서 ‘반대 2’는 ‘추천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와 같이 ‘찬성 1’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면서 추천으로 방식을 바꾸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을 뿐, 기존 방식인 심사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③ [B]에서 ‘찬성 1’은 ‘반대 1’이 말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로 작년 설문 조사 결과를 들었으나, 상대측이 사용한 근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근거의 출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⑤ [A]와 [B]에서 양측은 상대방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따지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37. <답> ⑤

<정답 풀이>

반대 측은 ㉠(추첨 방식)을 반대하고 기존의 방식인 ㉡(심사 방식)을 옹호하는 토론자이다. 따라서 ㉠(추첨 방식)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므로 ㉠(추첨 방식)이 ㉡(심사 방식)보다 더 공평하다는 주장은 반대 측의 주장이 아니라 찬성 측의 주장이다.

<오답 풀이>

① 찬성 측은 '찬성 1'의 입론에서, ㉠(심사 방식)은 동아리를 선정할 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고, ㉡(추첨 방식)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다고 하며 ㉠(추첨 방식)이 더 적합한 방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찬성 1'의 입론에서, ㉠(심사 방식)은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데, 이를 ㉡(추첨 방식)으로 바꾸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여 ㉡(추첨 방식)이 적합함을 주장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반대 2'의 반대 신문에서 ㉡(추첨 방식)을 시행하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음을 들어 ㉠(심사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반대 1'의 입론에서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심사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38~42]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학생회장: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열릴 체육 대회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 학교 체육 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토의가 열리게 된 배경을 제시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당부 사항) 그럼 먼저, 지금까지 열렸던 체육 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토의 순서를 안내함.)

참여자 1: 작년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하네요, 체육 대회의 종목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기존 체육 대회의 문제점①) 그동안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는 오전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단축 마라톤, 오후에는 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달리기 종목만 진행되니 학생들의 호응이나 만족도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2: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다른 참여자의 말에 동의를 표한 후, 자신의 의견을 보충함.) 게다가 단축 마라톤의 경우,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다 보니,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불평하며 참여하는 시늉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새로운 문제 제기)

참여자 3: 다들 알겠지만 단축 마라톤은 학교에서 벗어나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보니 안전 문제도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옆에서

달리는 차량을 의식하여 제대로 달리는 것도 어려워 학생들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 대회 종목이 적고,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종목이 있으며, 안전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토의 내용을 요약해서 재진술) 의견을 분석해 보면 결국 단축 마라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축 마라톤을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체육 대회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새로운 토의 사항을 제시함.)

참여자 1: 네, 그동안 단축 마라톤을 진행하다 보니 오전에 다른 종목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요, 만약 단축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면 오전에 더 많고 다채로운 종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나 피구, 농구 등 종목이 다양화되면 그만큼 많은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예시를 들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

참여자 2: 종목이 다양해지면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가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반 대항 단체 줄넘기 또는 단체 줄다리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 3: 단축 마라톤 대신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저도 찬성입니다.(다른 참여자의 의견에 찬성함.) 그런데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하루 동안 반 대항 경기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습니다.(예상되는 문제점) 그래서 말인데요, 반 대항 종목의 예선전을 체육 대회 전에 미리 하면 어떨까요?

참여자 1, 2: 네, 좋습니다.

학생회장: 네, 지금까지의 토의를 종합해 보면, 단축 마라톤을 이번 체육 대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 반 대항 종목은 진행 일정을 미리 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토의 내용을 요약함.) 그럼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안녕하세요?(건의문의 특성상 인사로 글을 시작함.) 저는 학생회장 김○○입니다.(건의자를 밝힘.) 올해 10월에 교내체육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는 전교생이 모두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기존 체육 대회의 문제점)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건의문을 쓴 목적)

우리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토의 참여자들은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가 달리기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오전

에 진행되는 단축 마라톤에는 체육 대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로부터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대회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걷다시피하며 반환점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되돌아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축 마라톤 코스가 교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언제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관할 지역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기는 했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생들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생회에서는 단축 마라톤 경기를 폐지하고 대신 축구, 피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며, 대회의 취지에 맞게 단체 줄넘기나 단체 줄다리기와 같은 반 대항 경기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모든 경기를 하루에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를 하실 수 있으나, 이는 예선전은 체육대회 전 방과 후에 틈틈이 진행하고, 결승전만 당일에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 토의 내용을 반영한 건의문 내용]**

저희의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리면서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적으로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함.)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을 맺습니다.(부탁하는 말)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 핵심 정리

- 갈래: 토의
- 성격: 논리적, 협력적, 참여적
- 주제: 우리 학교 체육 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특징
- ① 학생회장이 토의 순서를 안내함.
- ② 학생회장이 참여자들의 토의 내용을 요약함.

(나)

▣ 핵심 정리

- 갈래: 건의문
- 성격: 논리적, 체계적
- 주제: 우리 학교 체육 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
- 특징
- ①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의문을 작성함.
- ② 건의문의 목적을 고려하여 예의 있게 표현함.
- ③ 기존 방식의 문제점, 개선할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함.

38. <답> ④

<정답 풀이>

학생회장은 세 번째 발언에서 논의를 종합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논의할 내용에 대해 미리 알리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학생회장의 첫 번째 발언의 ‘우리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 학교 체육 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의 두 번째 발언의 ‘체육 대회 종목이 적고,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종목이 있으며, 안전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회장의 두 번째 발언의 ‘만약 이 종목을 체육 대회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학생회장의 첫 번째 발언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답> ⑤

<정답 풀이>

[B]에서 참여자 3은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하여 참여자 2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 대항 경기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예선전을 미리 하면 어떻까라고 제안하여 참여자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라는 참여자 2의 질문은 학교의 체육 대회 진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참여자 1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다.
- ② [A]에서 참여자 2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하여 참여자 1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자 1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에서 ‘다들 알겠지만~’이라는 참여자 3의 발화에서 참여자 1, 2와 공유한 정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1, 2가 언급하지 않은 안전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참여자 1, 2의 의견을 다시 언급한 것은 아니다.
- ④ [B]에서 참여자 2는 종목의 다양화를 제안한 참여자 1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반 대항 경기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40. <답> ③

<정답 풀이>

(가)에서 참여자 1은 종목의 다양화를 제안했고, 참여자 2는 추가로 반 대항 종목 신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나)의 3문단에서 이를 반영하여 교내 체육 대회에 진행 가능한 운동 종목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특징을 설명하거나 그런 특징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참여자 1은 체육 대회가 달리기 종목만 진행되어 학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1문단에서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여 건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참여자 2는 단축 마라톤에 강제로 참여시키다 보니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늉만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2문단에서 실제로 작년 대회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걷다시피 하며 반환점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되돌아왔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교내 체육 대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 (가)에서 참여자 3은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하루 동안 반 대항 경기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다고 하며 예선전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3문단에서 반 대항 종목의 예선전은 체육 대회 전 방과 후에 틈틈이 진행하고, 결승전만 당일에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보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참여자 1은 종목이 다양화되면 그만큼 많은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참여자 2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면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4문단에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리면서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41. <답> ①

<정답 풀이>

(ㄱ)의 ㉠에서 줄다리기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에서 원래 체육 활동을 싫어하여 체육 대회에 불만족한 학생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체육 활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줄다리기는 선호한다는 내용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에서 학생들이 줄다리기를 선호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ㄴ)에서 단체 경기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여서 단체 행사에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단체 경기인 줄다리기를 진행하면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 체육 대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③ ㉠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기 종목을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경기가 없어 체육 대회에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대회의 종목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종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④ ㉡에서 학생들이 단축 마라톤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때문에 체육 대회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체육 대회에서 단축 마라톤을 제외하면 기존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⑤ (ㄴ)에서 단체 경기는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반 대항 경기가 신설되면 반별 협동심을 고취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42. <답> ④

<정답 풀이>

(가)에서 학생회장은 ‘지금까지의 ~ 모아졌습니다.’ 등에서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한 후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학생회장은 토의 참여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지적하거나, 참여자들의 의견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또한 토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을 뿐, 토의 순서에서 벗어난 참여자를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토의 참여자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지도 않다.

[43~45] 작문

[지문 분석]

○○ 도서관 관장님께, 안녕하십니까?(독자에게 인사를 하며 글을 시작함.) 저는 □□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자신을 소개함.) ○○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다양하여 학교 과제를 위한 자료 수집도 편리하고 열람실 환경도 매우 쾌적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과 후나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수행 평가자료도 찾고, 시험 기간에는 열람실에서 늦은 시각까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지역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편안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도서관 3층에 있는 노트북 열람실의 경우 좌석 수가 50석이 채 되지 않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문제 상황 제시) 지난주에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서 노트북 열람실을 방문했는데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이용하지 못합니다.(문제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함.) 이에 노트북 열람실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을 관장님께 건의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글을 쓴 목적)

노트북 열람실에 가 보면 이용자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성인 이용자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하루 종일 노트북 열람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자리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 열람실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 청소년 전용의 노트북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건의 내용) 공간 확보가 어려워 따로 전용실을 만들기가 힘들다면 기존의 노트북 열람실 일부를 청소년 전용 열람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청소년들의 노트북 열람실 이용 시간이 주로 방과 후나 저녁 시간대이므로 특정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전용 구역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

최근에는 학교 과제로 UCC를 제작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발표문을 만드는 등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어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노트북 열람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청소년들을 위한 노트북 열람실이 필요한 이유) 한편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열람실의 좌석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열람실을 사용하지 못하면 카페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게는 카페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도서관 내에 청소년 전용의 노트북 열람실 좌석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공부하고 과제도 할 수 있게 되어 도서관의 효용 가치도 매우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 건의 내용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 3

▣ 핵심 정리

- 갈래: 건의문
- 성격: 논리적, 체계적
- 주제: ○○ 도서관 청소년 전용 노트북 열람실 신설에 대한 건의
- 특징

- 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함.
- ② 청소년 전용 노트북 열람실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43. <답> ④

<정답 풀이>

제시된 글에는 다른 도서관의 사례를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지난주에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서 노트북 열람실을 방문했는데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서 ~’와 ‘이에 노트북 열람실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을 ~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분을 보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등 필자는 경어체를 활용하여 건의 내용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와 ‘건의 내용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는 건의 내용이 수용되기를 기대하며 예상 독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공간 확보가 어려워 따로 전용실을 만들기 힘들다면 기존의 노트북 열람실 일부를 청소년 전용 열람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 한시적으로 전용 구역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는 내용은 건의 내용이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4. <답> ③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중간 부분에 예상 독자가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 자료가 나타난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 인사말과 건의자가 나타나 있고, 2문단에는 건의문을 쓰게 된 이유가 나타나 있다.
- ② 2~4문단에는 노트북 열람실의 좌석 수가 적어 대기자가 많고, 노트북 열람실의 이용자 대부분은 하루 종일 열람실을 이용하는 성인들이므로 청소년들이 노트북 열람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학교 과제나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노트북 열람실을 이용하지 못하면 카페 등을 이용해야 하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청소년 전용의 노트북 열람실을 따로 만들거나 특정 시간에 한시적으로 청소년 전용 구역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마지막 문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도서관 내에 청소년 전용의 노트북 열람실 좌석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은 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 도서관이 효용 가치도 매우 증대될 것’은 건의가 수용될 경우의 긍정적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건의내용을 읽어 주셔서 ~ 감사드립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한 것이다.

⑤ 예상 독자인 ○○ 도서관 관장님의 지위를 고려하여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45. <답> ①

<정답 풀이>

○○ 도서관이 도서관이 도서관이 다양하고 열람실 환경도 매우 쾌적하여 필자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내용이므로 앞뒤 관계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 문장과 서로 위치를 바꾼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지난주’를 고려하면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문장의 주어가 ‘이용자 대부분이’이므로 서술어에는 중복된 단어를 피하기 위해 ‘이용자’를 삭제하여 ‘성인들입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이 문장에서 ‘어려워지는’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므로 ‘어려운’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의 앞뒤 문맥은 인과 관계가 형성되므로 ‘한편’이 아니라 ‘따라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③	37	④	38	①	39	③
40	②	41	②	42	③	43	④	44	②
45	④	수고하셨습니다.							

[35번 언어 이론]

▶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

개념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유형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탈락	원래 있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첨가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
	축약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현상

▶ 음운의 교체

종류	규칙	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발음됨.	부엌[부억], 바깥[바깥]
비음화	‘ㄱ, ㄷ, ㅂ’이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됨.	국물[궁물]
유음화	‘ㄴ’이 ‘ㄹ’을 만나 유음 [ㄴ]로 발음됨.	산림[살림]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주로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됨.	굳이[구지], 같이[가치]
된소리 되기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됨. 음절 끝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용언의 어간 받침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에서 일어남.	독서[독써], 품고[품꼬], 발전[발쩐]

▶ 음운의 탈락

종류	규칙	예
모음 탈락	용언 어간 끝의 모음 ‘ㅏ/ㅑ’ 나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함.	‘가-’+‘-아서’→가서[가서]
자음군 단순화	음절 말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뭉→[뭉] 앉고→[안꼬] 넓다→[널따] 외곶→[외골]
자음 탈락	‘ㄹ’ 탈락: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ㄹ’이 ‘ㄴ, ㅂ, ㅅ, -오’ 등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놀다: 노니, 논, 놓니다, 노시다, 노오 등글다: 등그니, 등근, 등굽니다, 등그시다, 등그오
	‘ㅎ’ 탈락: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ㅎ’이 ‘ㄴ’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그렇다: 그러나, 그럴, 그러면, 그러오 낳은[나은] 싫어도[시러도]

▶ 음운의 축약(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ㅅ’이 ‘ㅎ’과 결합하면 거센소리 [ㅋ, ㅌ, ㅊ, ㅌ]으로 발음됨. 예) 법학[버팍]

▶ 음운의 첨가

반모음 첨가	규칙	예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됨.	되어[되어/되어]
‘ㄴ’ 첨가	합성 명사나 이에 준할 만한 말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음절이 모음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이 첨가되어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함.	꽃+잎→[꼐닙]→[꼐닙] 눈+요기[눈뇨기]

35. <답> ②

<정답 풀이>

㉠의 예들은 모두 ‘래’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서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적용되었다.

㉡의 예들은 모두 ‘ㄴ’이 첨가된 후 첨가된 ‘ㄴ’ 앞에서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의 예들은 모두 ‘ㄴ’이 첨가된 후 ‘ㄹ’ 뒤에서 첨가된 ‘ㄴ’에 유음화가 적용되었다. ㉠에 적용된 자음군 단순화(탈락)나 ㉡, ㉢에 적용된 첨가는 모두 음운의 개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정답이 된다.

<오답 풀이>

① 첨가는 ㉡, ㉢에만 적용되고 ㉠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③ ㉠에 적용된 두 가지 음운 변동은 탈락(자음군 단순화)과 교체(유음화)이므로 동일한 유형이 아니다. ㉡에는 첨가(‘ㄴ’ 첨가)와 교체(비음화)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역시 첨가(‘ㄴ’ 첨가)와 교체(유음화)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④ ㉠, ㉢에 적용된 유음화는 앞선 자음 ‘ㄹ’이 뒤 자음 ‘ㄴ’에 영향을 주어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설명에 부합한다. 그러나 ㉡은 오히려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그 앞의 자음이 바뀌었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⑤ ㉠에 적용된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는 음절 끝의 자음을 다른

고 3

자음으로 바꾸는 음운 변동이 아니다. ㉠에 적용된 ‘ㄴ’의 첨가와 유음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에 적용된 음운 변동 중 비음화만이 음절 끝의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바꿀 뿐이다.

[36번 언어 이론]

▶ 시제(時制): 말하는 이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의 앞뒤를 제한하는 것

① 현재 시제 :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할 때

표현 방법	종결형 : 동사 + ‘-는-/-ㄴ-’, 형용사, 서술격조사 단독	그는 지금 책을 읽는다. 하늘이 푸르다. 이것은 책상이다.
	관형사형 : 동사 어간 + ‘-는’, 형용사, 서술격 조사 + ‘-(으)ㄴ’	이처럼 예쁜(예쁘+ㄴ) 꽃은 처음이다.

특징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현재 시제 표시 형태가 따로 없다.	바쁘시다, 이시다
	발화시 관련 부사적 표현에 의해 뒷받침 된다.	지금, 현재, 요즘,...
	반복되는 동작이나 항구적 속성, 습관을 표시한다.	지구는 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형은 야구를 좋아한다.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예정된 일도 표시함. 확실한 미래.	내일 떠난다.(사건시와 발화시의 불일치)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	도서관은 책을 읽는 학생들로 붐볐다.
	현재에 있어서의 현재.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처음 본다.

② 과거 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설 때의 시제

표현 방법	종결형 :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어간 + ‘-았-/-었-’	오늘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관형사형 : 동사 어간 + ‘-(으)ㄴ’	나는 어제 읽은 책의 내용을 잊을 수 없었다.
특징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	(ㄱ) 말하는 이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할 때. 단, 주어가 말하는 이(1인칭) 자신일 때는 종결형에서 쓰이지 않음. 예) 그는 집에서 공부하더라. 나는 집에서 *공부하더라. (ㄴ) 관형사형에서는 ‘-던’으로 나타남(1인칭 주어와 결합). 예) 그것은 제가 읽던 책입니다.(동작의 지속 표시) (ㄷ) ‘-었-/-았-’ + ‘더’ : 경험 당시의 과거(과거 완료) 표시. 예) 용장이었던 충무공은 전사하고야 말았다.(동작의 완결 표시)
	발화시 관련 부사적 표현(어제, 작년...)	나는 어제 여섯시에 일어났다.

	‘-고 있었다’에 의하여 과거 진행의 동작상을 표시한다.	철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었었-/-았었-’을 써서 ‘현재(금년이나 오늘 등)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뚜렷히 한다. ‘-었-’에 비해 발화시보다 더 강한 단절감을 받는다.	작년에 삼남 지방에서 홍수가 났었다. 옛그제 철수가 극장에 갔었다.
	‘-었었-/-았었-’이 쓰인 문장에는 과거 관련 시간 부사어가 자주 나타난다.(주로 먼 과거에)	영숙이는 중학교 때 농구 선수였었다.
표현 방법	‘-었-/-았-’이 과거를 나타내지 않는 때도 있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할 때, 동작의 현재 완료를 뜻할 때. ‘았다, 서다, 뜨다...’등 결과성을 띠는 동작에 나타난다. 예) 그녀도 지금 의자에 앉았다.
		동작의 지속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예) 그녀는 온종일 책을 읽었다.

③ 미래 시제 : 사건시가 모두 발화시 이후일 때의 시제

표현 방법	선어말 어미 ‘-겠-’	미래 시제 표현	내일은 이 일을 꼭 끝내겠다.
		추측	내일도 비가 오겠다.
		의지	내가 먼저 가겠다.(평서문 1인칭, 의문문 2인칭)
		가능성	나도 그것은 알겠다.
		현재의 사건 추측	지금은 고향에도 벚꽃이 피겠다.
	과거의 사건 추측	고향에는 벌써 살구꽃이 피었겠다.	
	‘-ㄹ’(관형사형 미래 시제) → ‘-ㄹ 것, -ㄹ 때, ...’	미래시제 표현	내일은 그가 올 것이다.
		시간 표시어 앞에 쓰여 특정한 시제로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 모두 합격할 때까지 노력하자.

36. <답> ③

<정답 풀이>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에서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2인칭, 3인칭 인물의 의지는 화자가 알 수 없으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과거 일에 대해서는 주체의 의지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나는 집에 가겠다.”는 미래의 일이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나, “나는 집에 갔겠다.”는 과거의 일이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의 ‘-겠-’은 주체

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는 ㉠, ㉡, ㉢, ㉣의 밑줄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를 분석하여 그 기능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다.

[37~38번 언어 이론]

▶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주로 선어말 어미 ‘-(으)시-’에 의해 실현되지만, 주격 조사 ‘께서’나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함. •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에도 ‘-(으)시-’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함.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은 ‘계시다’인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로 쓰임. ㉠ 선생님께서는 책을 읽으십니다.(직접 높임.) 선생님께서는 책에 책이 많으십니다.(간접 높임.) ㉡ 선생님께서는 책에 계신다.(직접 높임.)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있으시다.(간접 높임.)
----------	--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됨. 상대 높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상대 높임	<table border="1">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격식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하십시오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하오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하계체</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격식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라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체</td> </tr> </table>	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비격식체	해라체	해체
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비격식체	해라체							
	해체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여쭙다, 뵈다/뵈다’ 등의 몇몇 동사에 의해 실현되거나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됨.
 ㉠ 나는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러 갔다.

▶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차이점

	중세	근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17C초)	신정심상소학(19C말)
객체 높임	잘 지켜 짐. ㉠ 묻즈 뵈샤디	지켜짐. ㉡ 밋줍더라	약화됨. 상대 높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 ㉢ 잇습노이다
주격 조사	이, ㅣ, ∅		‘가’ 추가 ㉣ 부엌이 가

37. <답> ④

<정답 풀이>

ㄱ은 주체인 ‘어머니’만 높이고 있다. 이는 서술어 ‘주셨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만 결합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ㄴ은 객체인 ‘할머니’와 ‘청자’를 높이고 있다. 이 문장의 서술어 ‘드렸습니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다’ 대신 ‘드리다’가 선택된 것은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함이고 ‘-습니다’가 결합한 것은 ‘청자’를 높이기 위함이다. ㄷ은 주체인 ‘어머니’와 ‘청자’를 높이고 있다. 서술어 ‘주셨습니다’에서 주체 높임의 ‘-시-’와 상대 높임의 ‘-습니다’가 각각 확인된다. ㄹ은 주체인 ‘형님’과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그 서술어 ‘드리신다’를 보면 객체 높임 어휘인 ‘드리-’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ㅁ은 주체인 ‘형’, 객체인 ‘할머니’, 그리고 ‘청자’를 높이고 있다. 이 문장의 서술어 ‘드리셨습니다’를 보면 객체 높임 어휘인 ‘드리-’,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상대 높임 어미 ‘-습니다’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주체, 객체, 상대 중 둘을 높인 경우는 ㄴ, ㄷ, ㄹ이다.

<오답 풀이>

㉠에 해당하는 문장을 모두 고른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38. <답> ①

<정답 풀이>

중세 국어 시기의 높임법은 모두 선어말 어미로 실현될 수 있었다. 현대 국어 시기로 오면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제외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줍-’과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한편 현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 ‘-시-’는 중세 국어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중세 국어 시기의 ‘-줍-’은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이때 객체는 사람이어도 되고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어도 된다. 본문의 예시를 보면 ‘王(왕) 말씀’을 높이기 위해 ‘듣-’에 ‘-줍-’이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③ 중세 국어 시기의 ‘-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 ‘호쇼셔체’에 해당된다. 중세 국어의 ‘호쇼셔체’는 현대 국어의 ‘하십시오체’와 그 높임의 등급이 비슷하다. 본문에서 ‘내 ... 씩든과이다’를 ‘내가 ... 깨달았습니다’로 현대어 풀이하여 그 높임의 등급을 보이고 있다.

④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실현되

고 3

며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주체 높임법만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⑤ 중세 국어의 ‘-줍-’과 ‘-이-’가 그 어원이 되어 현대 국어의 ‘-습니다’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습니다’의 기능은 상대 높임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중세 국어 ‘-줍-’의 기능, 즉 객체 높임의 기능은 ‘-습니다’에 들어 있지 않다.

[39번 언어 이론]

▶ 답화의 표현

답화가 하나의 완결된 의미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통일성과 응집성이 필요하다.

지시 표현	답화 내의 화자, 청자, 시간, 장소, 사물 등의 요소를 가리키는 표현.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등이 사용됨.
대용 표현	이미 언급한 말이나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 지시 표현과 유사한 형식인 ‘이, 그’, ‘이것, 그것’, ‘이러하다, 그러하다’ 등이 사용됨.
접속 표현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 주는 표현.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또한, 왜냐하면, 다시 말해, 예를 들어’ 등이 사용됨.

39. <답> ③

<정답 풀이>

‘우리’는 대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보기>의 대화 중 ㉠은 대화 참여자 ‘수빈, 나경, 세은’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의 ‘우리’ 역시 머리핀을 사러 같이 갈 수 없는 ‘수빈’을 포함한 대화 참여자 세 명을 모두 가리킨다. 이는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통해, 그리고 ㉠과 함께 쓰인 ‘셋이’, ㉡와 함께 쓰인 ‘다 같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의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은 ‘나경’ 혹은 ‘나경’을 포함한 형제자매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 ‘우리’ 역시 ‘수빈’ 혹은 ‘수빈’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 ㉡와 달리, ㉠의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에는 청자인 ‘수빈’이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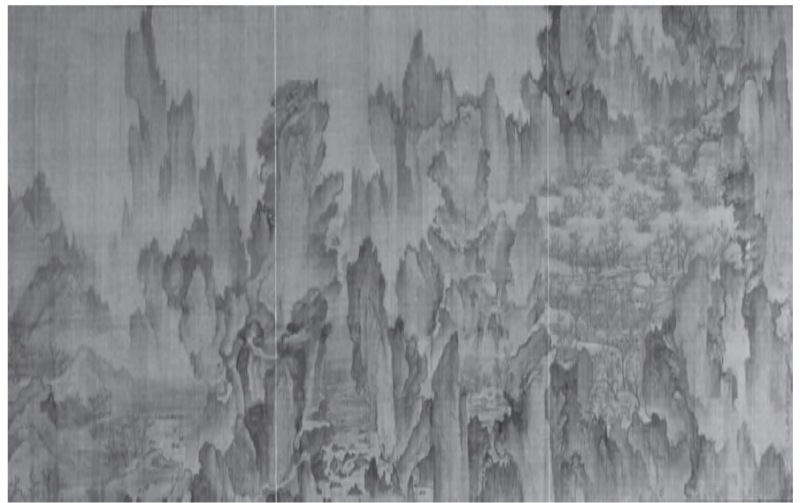
[40~42] 매체

[지문 분석]

안녕하세요? 모두 수행 과제 중간 발표를 맡은 모두 대표 ○○ ○입니다. 저희 모두는 ‘한국화와 멀티미디어 기술의 만남’을 테마로 하여, 한국화 감상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보여 드릴 멀티미디어 자료의 핵심이 되는 안건의 <몽유도원도>와 네덜란드의 화가인 호베마의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을 보여 드리면서, 한국화의 특성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발표 주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발표 내용을 반영하여 저희 모두에서 제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다음 발표 내용 안내)

한국화에서의 자연은 서양의 풍경화에서처럼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풍경화가 한 지점

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한다면, 한국화는 자연 속의 다양한 지점에서 바라보고, 훑어보고, 내려 보고, 올려 보는 시선을 반영합니다.(한국화와 서양 풍경화의 차이점) 한국화의 특성은 이동 시점과 산점 투시라는 기법으로 구현됩니다. [이동 시점은 눈이 머물거나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시점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화가가 사색하거나 체험하는 자연에 대한 시선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산점 투시는 화가가 다양한 지점에서 사색하거나 체험한 대상에 대한 시선들을 한 작품 속에 모두 구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기법은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변화를 함축합니다.] ([]: 이동 시점과 산점 투시의 개념)



[자료 1]

(‘자료 1’을 제시하며)(시각 자료를 활용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 1’은 안건이 안평 대군의 꿈을 토대로 상상하여 그렸다고 알려진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작품은 꿈에 들자 만나게 된 골짜기의 오솔길과 흙 언덕, 험하고 기괴한 바위산, 복사꽃이 만발한 도원동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산수화와 달리 이 작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상하도록 되어 있으며(일반적인 산수화와 차이점),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꿈속에 나타났던 장면이 점점 강조되며 파노라마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 세계를 표현한 왼쪽의 오솔길과 흙 언덕은 정면에서 보는 시점으로 그려져 있고, 이상적 세계를 표현한 오른쪽의 바위산은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몽유도원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하나의 시점에 따르는 서양화와 달리, 상하와 좌우의 거리 조정, 성감과 뻑뻑함의 변화 등을 그때그때의 다양한 시점에 따라 다채롭게 표현하는 산점 투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료 2]

(‘자료 2’를 제시하며)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떠신가요?(청중의 반응을 확인함.) 이 작품과 비교해 보면 <몽유도원도>의 특징이 훨씬 잘 이해될 것입니다.([자료1]과 [자료2]를 비교하도록 하여 한국화의 특징을 설명함.)** 원근법을 대담하게 사용하여 부드러운 빛이 넘치는 전원을 표현한 작품으로, 하나의 고정된 시점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서양 풍경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한 화면에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자연을 관찰의 대상으로 보고 단일한 시선으로 재현하는 서양화와 달리, 한국화에는 화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연의 면면을 각각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특징(한국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한국화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든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갈래: 발표문
- 성격: 대비적, 설명적
- 주제: <몽유도원도>로 바라본 한국화의 특징
- 특징

- ① ‘자료1’과 ‘자료2’를 비교하도록 하여 한국화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냄.
- ② <몽유도원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③ 다음 발표 내용을 안내함.

40. <답> ②

<정답 풀이>

발표자는 ‘자료 1’이나 ‘자료 2’의 유래나 가치를 드러내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체 자료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발표자는 발표의 서두에서 ‘한국화의 특징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몽유도원도>와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을 보여 주며 설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차시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③ 발표자는 ‘이동 시점’과 ‘산점 투시’를 한국화의 특징으로 언급

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발표자는 한국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몽유도원도>와 서양 풍경화의 특징을 보여 주는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각 자료의 특징을 시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매체 자료의 시각적인 특징을 대비하며 서양화와 구별되는 한국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41. ②

<정답 풀이>

학생의 반응 중 발표자의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찾을 수는 있으나, 발표에서 활용한 매체 자료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알고 있던 배경지식을 비교하여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자료 1’과 관련하여 ‘작품 속에 그려진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하며 발표를 들었던 학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작품을 예시로 활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학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자료 1’과 관련하여 ‘박물관에서 봤을 때 풍경이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감상을 떠올리며, 그것이 발표에서 설명한 ‘시선’과 관련된 것임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한국화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든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와 관련한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소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학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42. ③

<정답 풀이>

발표에서 <몽유도원도>는 꿈을 토대로 상상하여 그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화는 ‘자연 속의 다양한 지점에서 바라보고, 훑어보고, 내려 보고, 올려 보는 시선을 반영’하는데 <몽유도원도>는 역시 이러한 한국화의 특징에 따라 ‘정면에서 보는 시점’과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작품에 그려진 대상을 고정된 시선으로 보는 것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발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발표에서 한국화는 ‘눈이 머물거나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시점의 중심’이 된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지점에서 사색하거나 체험한 대상에 대한 시선들을 한 작품 속에 모두 구현’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몽유도원도> 속 공간을 캐릭터가 이동하게 하여 캐릭터의 시선 방향으로 시점을 표현하는 방식은 발표 내용에 부합한다.
- ② 발표에서 <몽유도원도>의 공간이 골짜기의 오솔길과 흙 언덕, 바위산, 도원동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 기기에서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은 발표 내용에 부합한다.
- ④ 발표에서 <몽유도원도>는 ‘상하와 좌우의 거리 조정, 성김과 뻗뻗함의 변화 등을 그때그때의 다양한 시점에 따라 다채롭게 표현’하였고,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은 ‘원근법을 대담하게 사용하여 부드러운 빛이 넘치는 전원을 표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각 작품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각하는 것은 발표 내용에 부합한다.

⑤ 발표에서 <몽유도원도>는 다양한 시점을 반영하고, <미텔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각 작품에서 가상의 선을 활용하여 두 작품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발표 내용에 부합한다.

[43~45] 매체

[지문 분석]


(가)

3면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사회 제2571호 ○○신문

‘물 폭탄’은 온난화 나비 효과 북극·시베리아 이상 고온에 동아시아 비 세례

올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고 있는데다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인 장마와 폭우는 북극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상 고온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극과 시베리아 일대의 기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눈과 빙하가 녹아 지표면이 태양광을 반사하



지 못하고 흡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따뜻한 공기가 정체돼 등에서 서로 움직이던 찬 기류가 남북으로 움직이며 동아시아 쪽으로 밀려왔다.

기상청 관계자는 “나비 효과처럼,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이상 폭우를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 기상학과 □□□ 교수는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찬 기류


시년 3일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박▽▽ 기자

(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회 최신 기사 교육 노동 사건 사고



화재 구조 외국인 노동자 ‘의상자’ 인정

불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큰 화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의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


2020. 8. 4. 21:06



◇◇◇, 거액 기부

배우 ◇◇◇ 씨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억 원을 구호 관련 단체에 쾌척한 사실 ...


2020. 8. 4. 20:30



‘물 폭탄’은 온난화 나비 효과

올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고 있는데다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

2020. 8. 4. 20:23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국가 인권 위원회(인권위)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

2020. 8. 4. 20:15

원료

(가)

■ 핵심 정리

- 갈래: 신문 기사, 인쇄 매체
- 성격: 객관적, 정보 전달적
- 주제: 2020년 8월 5일자 신문에 게재된 다양한 기사들
- 특징
- ① 신문의 특징에 따라 표제와 부제로 기사 내용을 제시함.
- ②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이 제시됨.

(가)

■ 핵심 정리

- 갈래: 인터넷 기사, 인터넷 매체
- 성격: 객관적, 정보 전달적
- 주제: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다양한 기사들
- 특징
- ① 최신 기사일수록 상단에 배치함.
- ② 인터넷 매체이므로 기사가 게재된 시각이 나타나 있음.

43. <답> ④

<정답 풀이>

(가)는 인쇄 매체이고 (나)는 인터넷 매체이다. (나)를 보면 기사 목록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렬되어 있고 최신 기사일수록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매체는 갱신이 비교적 쉬우므로 그때그때 시간 순서에 따라 기사를 정렬하여 게시하기가 쉽다. 반면 종이 신문은 인쇄 매체여서 일단 인쇄된 후에는 갱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기사별로 게재 시각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가)는 종이 신문이어서 기사가 게재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가)에 기사 게재 시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는 내용을 함축하여 전달하는 표제와 부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표제만 사용하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시각 자료의 의미가 글의 의미와 결부되어 해석된다.

⑤ (가)는 종이 신문이므로 기사의 본문을 다 보여 주고 있다. 오히려 (나)가 기사의 본문을 일부만 노출한 상태에서 독자가 자세히 읽고 싶은 기사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4. <답> ②

<정답 풀이>

<보기>에 따르면, 편집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지면에 들어갈 기사와 지면에서 배제될 기사를 선택하고 지면에서 각 기사가 차지할 위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기사를 배열한다. (가)에서 ‘폭우’ 대신 ‘물 폭탄’을 사용한 것은 단어의 사용과 표현 차원의 선택이므로, 편집자가 기사의 선택과 배열을 행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편집자가 지면에 들어갈 기사와 지면에서 배제될 기사를 선택하므로, 편집자가 달라진다면 (가)에는 다른 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기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어떤 주제로 기사를 쓸 것인지를 선택한다.

④ <보기>에 따르면, 편집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지면에서 각 기사가 차지할 위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기사를 배열한다. 따라서 기사의 배열 순서에는 편집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기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누구와 인터뷰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45. <답> ④

<정답 풀이>

<보기>에 따르면, ‘선별 시스템’은 내용과 표현이 충실한 기사만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뜻한다. 따라서 (나)에 표제만 고 본문이 없는 기사가 향후에도 올라오지 않으려면 ‘선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화면에서 독자는 목록 중에서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하면 된다. 독자의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은 (나)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화면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가 서로 비슷한 내용인 경우이다. (나)는 한 신문사의 기사 목록 화면이고 서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한 화면에 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나)에서는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보기>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화면에서 오탈자나 비문이 포함된 기사는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즉 더 신속하게 읽히려고 급하게 기사를 작성해서 올리다 보니 오탈자나 비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화면에 나타나는 목록이 각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에서 기사 본문으로 이동했을 때 오탈자가 보인다면, 이를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서지정보

저자 정준희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6384-5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4.01.31

가격 1,500원